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한 연구

— 갈뱅(Jean Calvin)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현 요 한

이 논문을 석사학위(Th. M.)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이 문 규

이문규의 석사학위(Th. M.) 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1년 2월

감사의 글

오늘의 저와 이 논문이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개혁신학의 기초와 매력 및 삶에 눈을 뜨게 하신 이수영 목사님, 그리고 논문지도를 통하여 신학적인 통찰력과 깊이 뿐만 아니라 자상하신 인격적인 모습까지 본으로 보여주신 현요한 교수님, 또한 신학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새로움을 제시해주신 김명용, 윤철호, 김도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학함의 길을 견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끊임없이 보살피 주신 누나, 뒤에 장남 역할까지 넉넉히 감당해 준 남동생 그리고 아내 현정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1년 2월

이문규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II. 그리스도인의 삶	7
A. 삶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	8
B. 삶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믿음)	12
C. 칭의와 성화의 삶	13
D. 경건훈련으로서의 삶	16
1. 경건의 의미	17
2. 경건의 훈련	20
a. 자기 부정	22
b. 십자가의 훈련	24
c. 내세에 대한 묵상	25
d. 기도	28
E. 훈련의 장으로 삶의 전 영역	31
1. 교회에서 훈련의 삶: 은혜의 수단과 훈련의 장소	32
a.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의 교회	32
b.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35
c. 통치와 훈련기관으로서의 교회	36
2. 국가(사회)에서 훈련의 삶	40
a.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국가	41

b. 국가 통치와 법	44
3.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개혁 훈련	46
a. 깔뱅의 생애에 있어서 제네바(Geneva)	47
b. 제네바의 개혁 훈련과 컨시스토리(consistory)	50
III. 창조에서 복음에 이르는 율법 이해	56
A. 창조질서에서 자연법과 십계명(도덕법)	58
B. 실정법	64
C. 언약과 십계명	68
1. 율법의 요람(cradle)으로서 언약(covenant)	68
2. 십계명	71
D.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77
1. 본질의 일치성(unity)	79
2. 형식의 차이(distinction in form)	80
3. 문자와 성령의 대조	82
E. 율법과 그리스도	86
IV.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	93
A. 율법의 신학적 및 정치적 사용	93
B. 율법의 제3용도	95
1. 역사적 발전의 흐름	95
2. 하나님 뜻의 길잡이와 지침	98
3. 성서 주석의 중심 원리	101
4. 십계명 설교에서 적용된 용법	104
5.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용도	110

V.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114
A. 율법에서 하나님 섬김으로의 자유	115
B. 성령의 사역으로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 극복	118
V. 결론	123
참고문헌	126

약어 표(Abbreviations)

- CO *Ioa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 CR *Corpus Reformatorum*
- Inst. *Institutio Christians Religionis*
- Comm. *Calvin's Commentaries*
- LCC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 CS *Joanis Calvini Opera Selecta*
- Serm. *Calvin's Sermons*

I.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궁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의 삶을 사는 듯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자의 삶은 무늬조차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딤후 3:5)와 같은 경우이다. 이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삶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말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삶의 유형과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분리되어 있던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삶의 전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삶의 내용과 지침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면만 강조하는 부류도 있는 반면에, 김교신과 함석헌 등에 의한 무교회주의¹⁾는 교회의 존재 의미와 조직교회를 무시하고자 한다.

1) 1920년대 한국·일본에서 전개된 교회 혁신운동. 넓은 의미에서의 무교회주의는 조직화된 제도권 교회를 강조하여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른바 교회주의에 반대 또는 저항하는 신앙과 신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조는 교회에 대한 일종의 아노미(anomy) 현상으로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시도는 일본의 무교회주의 창시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문하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비롯된다. 21년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의를 청강하여 27년 3월 귀국할 때까지 7년 동안 영향을 받은 김교신(金敎臣)을 중심으로 하여 함석헌(咸錫憲)·송두용(宋斗用)·정상훈(鄭相勳)·유석동(柳錫東)·양인성(楊仁性) 등이 1927년 7월 동인지 형태의 월간지 《성서조선(聖書朝鮮)》을 발간하였는데, 이 잡지가 한국에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 참고).

김교신에 의하면 “무교회주의란 진정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요, 무교회주의자란 진정한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유무(有無), 세례의 유무 등은 하등 관계 없다.” 즉 참 그리스도교는 교회 없이도 가능하며, 그리스도교의 궁극적 소망인 구원도 또한 교리 없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앙형태는 동료인 함석헌에 와서 사상적 체계를 갖추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무교회주의는 교회의 바리새주의, 조직교회의 비복음적 현상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회의 삶은 소홀하지만 사회정의와 개혁을 위해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부류도 있다. 특히 해방신학과 그의 영향을 받은 민중신학이 그러하다.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신학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경험과 해방을 위한 투쟁 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바른 교리(orthodoxy)가 아니라 바른 실천(orthopraxy)을 추구한다. 이 실천은 사회역사적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기성교회에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극단적인 삶의 유형은 조화될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학문, 예술, 경제 등 삶의 전 영역에 미치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삶의 장(field)에 대한 혼란과 괴리도 있지만, 삶의 규범과 지침에 있어서도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율법만을 고집하여 율법주의에 얽매어 삶의 기쁨과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며, 구약시대에만 제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율법폐기론자들 또한 있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삶의 질서는 더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스피드가 중시되고 가상공간의 삶이 확대될수록 우리 삶의 올바른 지침은 더욱 굳게 세워져야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 문제를 명료하게 다루고, 이 삶은 훈련(discipline)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율법이 훈련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 올바로 제시된다면, 21세기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갈뱅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갈뱅이 말하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은 균형잡힌 신자의 삶을 제시해 주며, 율법의 제3용법(*tertius usus legis*)은 성령 안에서 삶의 지침을 제공해준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삶은 경건의 훈련으로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율법은 신자의 삶과 훈련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은혜의 법이다. 그리고 율법의 제3사용은 신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율법폐기론을 극복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갈뱅에게 있어 율법은 죄를 폭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에게 이끌어 그를 만나게 하여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며,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삶의 규범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율법은 오늘날 무질서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올바른 지침과 빛으로 소중히 되새겨져야 할 것이며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왜곡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영원한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의한 훈련의 삶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나라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활,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였고, 율법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고, 자연의 참된 질서를 회복하였으며, 인간성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의 몸과 지체가기 때문이다.

특별히 칼뱅이 말하는 신자의 삶의 훈련은 사회적 성화 운동으로 발전한다는 점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즉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신정 정치의 사회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개 이름을 칼뱅이라고 짓기까지 모욕을 당함) 인내를 갖고 사회적 성화 운동을 실천했고, 저속한 노래와 카드놀이 등을 금지시켰다. 루터는 두 왕국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교회)과 왼손 왕국(국가)의 정교 분리를 강조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에 독재 권력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칼뱅은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국가의 주인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속 국가도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왕국이 단순히 의식주에 관계된 현실 생활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존경받을 만하게 살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국가가 세워졌기에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²⁾ 국가가 범죄를 억제하며 백성들의 생활의 외적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였고, 관리들은 이 법률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들찌 기능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국가의 통치규범으로서 역할, 즉 '시민적 사용'(usus civilis) 혹은 '정치적 사용'(usus politicus)으로 그 의미가 중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칼뱅이 말하는 율법은 총체적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삶과 훈련의 지침과 규범이 되어 신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가운데 창조질서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게 한다. 즉,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회개,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삶의 훈련이며, 이 훈련의 장소는 교회에만 제한된 것이 아

2) 국제신학연구원 편,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서울: 국제신학연구원, 1998), 127-128쪽.

나라 국가와 사회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신자의 삶의 훈련에서 규범은 율법, 특히 도덕법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을 극복하여 신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은혜의 법이다.

갈뱅이 제시하는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삶, 그리고 제네바시를 성화하기 위해 전개하였던 사회적 성화훈련은 시대적 제한과 지리적 문화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I 장에서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범위를 말하면서 제II 장에서는 갈뱅이 말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 원리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인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삶과 훈련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다. 여기서 출발된 신자의 삶은 계속하여 칭의와 성화의 삶과 경건의 훈련으로서 삶을 살게된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삶의 영역이자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의 장으로 삶의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회와 국가에서 삶의 훈련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그 실례로서 갈뱅이 제네바에서 행한 사회적 개혁 훈련을 소개할 것이다. 제III 장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훈련에서 규범과 지침이 되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다. 갈뱅신학에서 율법의 위치를 언급하면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율법의 의미를 살릴 것이다. 창조의 원리에서 시작한 자연법에서부터 모세법과 이 법의 모체인 언약, 그리고 이 언약과 십계명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 신자의 삶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제Ⅳ장은 율법의 제3사용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한 후에 율법의 제3용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길잡이와 지침으로서의 역할과 이것의 근거는 성서 해석의 중심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삶의 실제적인 적용은 갈방의 설교로서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는 궁극적 목적은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음을 피력할 것이다. 그리고 제Ⅴ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강조하여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신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이다. 이 때 중요한 사역자는 성령이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으로 요약하고 오늘의 시대에 맞추어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 자료는 갈방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과 최종판(1559년), 갈방의 성경주석과 설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문 등을 참고하기로 하겠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김종흠의 3인 공역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또 갈방 주석은 LCC와 존 칼빈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에서 편역하고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가 감수하여 성서원에서 발행한 것을 참고하였다. 한편 갈방 자신의 라틴어와 불어로 된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고 인용하지 못하여 재인용한 점과 영역본 등에 의존한 점 아쉽고, 아울러 이 논문이 갖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II.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또 이 삶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이 삶은 훈련으로의 의미가 있으며, 훈련이기에 일부분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삶의 장(field)에 속하며 이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갈뱅의 사상에 나타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에 이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칭의와 성화, 그리고 경건의 훈련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과 훈련의 장소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 국가 전 영역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서 주님의 법을 말한다. 즉 “인간 생활의 정리를 위하여 가장 잘 마련된 방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제공한다. 그러나 하늘 교사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율법에 제시된 준칙과 부합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³⁾는 것이다. 여기서 갈뱅은 하나님의 법(율법)을 인간의 삶을 질서 있게 세우는 가장 아름답고 잘 배열된 방법으로 말한다. 삶과 삶의 훈련의 길잡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길잡이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이런 훈련의 삶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제한되는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훈련에서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가? 갈뱅은 하나님의 이 법안에 따라 규칙(regulam)을 만들고, 이 규칙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였

3) J. Calvin, Inst.(1559) III. 7. 1.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A. 삶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개혁신학자 니젤(W. Niesel)은 갈뱅사상의 특성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사상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즉 “갈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삼을 때에도 신의 영광 개념이 그의 사고 속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갈뱅의 사상과 실천을 해석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갈뱅은 사들레토 추기경(Cardinal Sodoletto)에게 보낸 답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⁵⁾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자기 실존의 제1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의 생각을 한정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서 존재를 유지하므로(롬 11:36), 그것들은 모두 그와 관련시켜서만 생각되어야 한다.

나는 참으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합당한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구원과 확고하게 연합시킴으로써 그것을 장려하고 널리 퍼려는 열심을 진정시키셨음을 인정한다. ……기독인이 자기

4)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1957),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역간, 1979), 242쪽.

5) OS 1:363—364,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Westmister/John Knox Press, 1989),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43-44쪽에서 재인용.

자신의 영혼구원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

이 교리는 이중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다른 목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nostri non sumus*).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해서 안 된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Dei sumus*). 그러므로 그분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게 하자.⁶⁾

칼뱅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의 지혜와 그의 뜻(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 분만을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 분만을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증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적인 존재의 동기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인생의 목적은 철저한 하나님 주권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구속이라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우리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final)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

6) J. Calvin, Inst.(1559) III. 7. 1.

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적 삶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이다.⁷⁾

갈벡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장엄한 극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이 전세계 앞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고상하며 비천함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비추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보다 더 밝게 그것이 비친 곳은 없다. 그 십자가에서는 만물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변화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분명히 선언되었으며, 죄는 완전히 말소되었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회복되었으니, 한마디로 온 세상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훌륭한 질서로 회복되었다.”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구속 은혜에서 드러남은 그의 영광이 인간을 노예처럼 복종하도록 몰아넣는 냉혹하고 거칠거나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행복을 돕는다. 하나님은 영광이 필요하시거나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란 것이다.

그리고 갈벡은 제네바 요리문답(Geneva Catechism)의 ‘신앙’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다양한 측면을 말한다. ⁹⁾

7)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44-45쪽.

8) CR 47:316

9) Jean Calvin, *Le Catechisme de L'Eglise de Geneve*(1541/2), 한인수 역, 『갈벡의 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101-102쪽.

목사 :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아이 :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곤경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을 구하며,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예로서의 두려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응답의 사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지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개인의 전적인 응답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요리문답이 가리키는 대로 신뢰, 봉사, 의지(依支), 그리고 감사라는 개인적인 응답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한다. 하지만 타락하여 죄인이 되고 창조주와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즉 삶의 기초를 세울 때 그리스도는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의 존재이며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B. 삶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 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굴레에 기인한다. 그 굴레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개성 전체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꼼짝못하게 가두어 버렸다.¹⁰⁾ 이런 죄의 속박에

10) 갈병은 사람의 타락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지만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서의 해방이 기독교적 삶의 선요건이다. 갈뻥에 의하면 이런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었다. 그의 수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¹¹⁾는 것이다.

갈뻥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유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적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유익들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 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용,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셔야 했다.”¹²⁾는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갈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때로서의 성령이라는 점이다. “성령은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보자 역할을 한다.”¹³⁾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영역으로의 타락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비록 타락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다. “우리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성의 부패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올바르거나 경건한 감정을 전혀 갖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다(Comm. 요일 4:10).

11) CR 51:612.

12) J. Calvin, Inst.(1559) III. 1. 1.

13) Francois Wendel, Calvin,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261쪽.

믿음¹⁴⁾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부여되고, 이 사람들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요 1:12-13)고 가르쳤다. ……바울은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이라고 가르친다. 이 선생의 노력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며, 성령의 노력이 없으면 이 약속은 헛되이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고 한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유일한 근원은 성령이라고 간단히 일깨워 주고 있다.¹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과 성령에의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몸과 하나가 될 때 보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놀라게 된다.”¹⁶⁾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의 의로 되는 수단이요, 용서가 주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C. 칭의와 성화의 삶

14) 갈벱은 『기독교 강요』 III권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15) J. Calvin, Inst.(1559) III. 1. 4.

16) Sermon on Ephesians 3:9-12.

칭의와 성화에 대한 관계는 개신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에는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이라는 함정이 상조하고, 다른 한편에는 행위의 의(義)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에 기울어지려는 끝없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갈뱅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칭의되며 동시에 성화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¹⁷⁾는 것이다. 갈뱅은 칭의의 논리적 우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성화와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성을 강조했다. 칭의는 용납(acceptance)인 반면에 성화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개혁 작업으로, 성령이 인간을 계속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remaking)이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반면에,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 과정이다. 갈뱅은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과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심으로써 그가 받은 선물을 우리도 나눠 가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17) 방델(Wendel) 역시 “칭의의 은혜와 증생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 또는 교제’(institutio in Christum)를 강조한다. “갈뱅이 이 칭의와 증생을 시간적인 관계로 여겼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성화는 칭의의 목적이 아니다. 성화 역시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지만 여전히 독자적으로 남아 있다. 갈뱅이 거듭거듭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이 두 은혜를 연합하는 때의 존재와 성격이다. 이때는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 또는 교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 갈뱅에게 있어 칭의와 성화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두 가지 은혜라는 사실이다.” (Francois Wendel, Calvin, 한국갈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280-82쪽).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 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의 친교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믿음을 의로 생각한다고 하는 오시안더의 중상을 반박하였다.¹⁸⁾

갈뱅의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나 분리될 수 없는 상호협력과 보완의 유기적 개념이다. 이는 ‘칭의’와 ‘성화’를 ‘은혜의 주입’(infusion)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가톨릭의 견해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칭의’, ‘중생’, ‘성화’의 3부분으로 나누는 웨슬레의 견해와도 같지 않다. 갈뱅은 ‘의의 전가’(imputation)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화의 개념을 부각시킨다. 갈뱅에게는 ‘칭의’와 ‘성화’가 역동적으로 조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¹⁹⁾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²⁰⁾

이와 같이 갈뱅에 따르면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

18) J. Calvin, Inst.(1559) III. 11. 10.

19) 이 발언은 외면적으로 III. xi에서 오시안더에 반대한 갈뱅의 논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거기서도(6절) 갈뱅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도, 둘은 ‘분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기서와 같이, 고린도전서 1:30을 인용한다. 참조, III. XX. 45.

20) J. Calvin, Inst.(1559) III. 16. 1.

합되어 있으며 상호 협력과 보완의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²¹⁾

그러므로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인 칭의와 성화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며,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화와 칭의는 비록 구별이 되었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칭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동반하지만,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이다. 한마디로 일시적이거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D. 경건훈련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훈련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 감사와 은혜의 순종에서 샘솟는 삶의 변화이다. 이 경건은 현대적인 용어인 '영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 요셉 리차드(Joseph Richard)는 “갈뱅의 영성의 본질적 표현으로서 경건”을 말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방향, 즉 경건과 의, ... 곧 이웃사랑으로 설

21) 갈뱅은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으로 칭의와 성화에 대해,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확장시켜 강조한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이신칭의' 교리를 '값싼 은총'으로 비난하는 데에 따른 반작용이다. 갈뱅에 의한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 작용이다. 즉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칭의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삶인 성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참조. J. Calvin, Inst.(1559) III. 11. 11.

명한다. 그리고 경건과 의는 율법의 두 편을 말한다고 한다.²²⁾ 이것은 경건의 훈련 뿐만 아니라 영성훈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른 지침이 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²³⁾

우리는 경건을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으로 보면서, 경건의 의미를 서술하고 이 경건은 완성품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기에 경건도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훈련을 받으며 내세를 묵상하고 기도훈련을 하는 것이다.

1. 경건의 의미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pietas*)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다.”²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칼뱅은 그의 첫 요리문답(1537년에는 불어로,

22)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163쪽.

23) 현대의 추세를 보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영성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고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혼돈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영성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많이 제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성경적인 근거를 벗어나서 신비적인 면으로 치우치기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성의 구체적인 성서의 근거와 방향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히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전체에 걸친 사상으로써 복음적이면서 구체적인 영적인 삶의 지침이 되리라 본다.

24) *Pietas*,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이 복합된 것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전체 조건임을 칼빈은 즐겨 강조한다. 참조, I. iv. 4. 여기에 나오는 *pietas*의 내용은 칼빈이 1537년에 말한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즉, “참된 경건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피하는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1538년에는 라틴어로 출판)에서 경건(*pietas*)에 대해서 “참된 경건은 자기가 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달아나는 두려움에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 거스르기를 죽기보다 무서워할 뿐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지한 감정이다”²⁵⁾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갈뱅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갈뱅의 주석과 그 밖의 글들도 살펴보아야만 한다. 시편 주석(119:789이하)에서는 경건의 참된 본질이 신자들의 두 가지 표적,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경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함과 섬김에 나타난다고 가르쳤다. 갈뱅에게 있어 지식 또한 크게 말해 경건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 예레미야 주석(10:25)에서 갈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cognitio Dei*)을 경건의 시작²⁶⁾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invocatio*)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매요 경건이 있다는 증거이다.²⁷⁾

갈뱅은 또한 경건과 사랑(*Caritas*)을 연관시키고 있다. 에스겔서 강해(18:5)에서 경건을 사랑의 뿌리라고 말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를 뜻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바르게 살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에 있다.” J. Calvin, *Inst.*(1559) I. 2. 1.

25) John Calvin, *Catechism*(1537), ed. and trans. Ford Levis Battles (Pittsburgh: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2), p. 2.

26) “지식은 생명의 기초이며, 경건의 첫 입구이다.”(벧후 1:3 주석).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은 경건의 규칙이며, 따라서 이해의 참된 빛이 없이는 어떠한 신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행 17:4 주석).

27) Donald K. McKim,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MI., USA: Grand Rapids, 1984), 이종태 역, 『갈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51-252쪽.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적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이의 관계는 신명기 5:16 설교에서 더 발전되고 있다. 이교도들은 우리들이 부모와 웃어른들께 바치는 존경을 경건으로 부른다. 부모들, 행정의 장들 그리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갈방은 경건을 사랑보다 위에 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으시기 때문이다.²⁸⁾

이처럼 갈방은 경건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의 수평적 관계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율법의 두 서판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경건과 의는 율법의 두 서판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삶의 순전성은 이 두 부분에 놓여 있다(눅 2:25 주석). 그리고 경건의 시행은 율법의 첫째 서판에 놓여 있다……”(딤후 2:12 주석)는 것이다. 율법의 두 서판이 각각 서로 구별되는 일면을 가지면서도 결코 나누이지 않으며 그 둘이 더불어 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끼리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갈방이 이 둘의 의미를 구별할 때에는 그것들을 서로 떼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둘 사이의 밀접하고 불가분리한 관계성을 강조한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⁹⁾

그래서 갈방이 말하는 경건의 개념은 삶의 일부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딤후 전 4:8 주석)고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28) 위의 책, 253쪽.

29) 이수영, “갈방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집, 95년, 364쪽.

따라서 “갈뱅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며,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이고, 신자들의 삶의 모든 덕목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증해 주는 생성적인 힘”³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또 경건 훈련의 다양한 차원은 무엇인가?

2. 경건의 훈련

경건은 완제품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또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획득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향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인간 쪽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얻어지며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여야만 한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 생활에는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살전 4:7; 엡 1:4; 살전 4:3 참조). 이 때에 신자들에게 의무를 알려주며 거룩과 결백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다.”³¹⁾ 따라서 ‘경건의 훈련’은 되어져야 한다. 갈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 제 칠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휴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었다.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 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³²⁾ 이 경건 훈련은 한 순간에 완전히

30) 위의 책, 371쪽.

31) J. Calvin, Inst.(1559) III. 19. 2.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성화된다면, 우리의 선행은 순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로 쌓여 제2의 습성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경건의 훈련도 요구하는 것이다.³³⁾

갈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범이 그리스도라면, 경건 훈련의 목표 또한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 연합된 인간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뱅은 경건 훈련의 원리를 인간학적인 철학적 규범에서 찾지 아니하고 성서에서 찾고 있다.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벧전 1:16). 즉 하나님이 기록하시니 우리도 기록해야 한다. “성서는 우리의 생의 창조주 하나님께 관계할 뿐만 아니라 창조에서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방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성격을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³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에는 어떤 차원의 삶이 있는가? 갈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III권 6-1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는데, 이를 경건의 훈련과 연관지어 보고자 한다. 『기독교 강요』 바로 앞부분인 2-5장은 믿음과 중생, 회개를 말하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32) J. Calvin, Inst.(1559) II. 8. 28.

33)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공로적 성격을 부정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인간 행위의 성화와 발전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개별적 행위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내적 경향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로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옛 스콜라 신학의 미덕의 개념에 배울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요한,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254쪽.

34) J. Calvin, Inst.(1559) III. 6.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중간에 위치함으로 믿음과 칭의를 연결하는 과정과 점진적인 훈련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20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으로 경건훈련의 방법이자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a. 자기 부정

참된 경건은 자기 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부정은 경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⁵⁾ 갈뱅이 제안하는 자기 부정은 단순히 부정적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긍정적 자세도 포함하고 있다. 자기 부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이웃에 대한 형제 같은 사랑 안에 자아를 확립시킨다. 남을 향한 존경과 봉사의 견지에서 본 자기 부정은 영성의 새로운 능동성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 부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서 자기 부정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께 전폭적 의지를 의미한다. 자기 부정은 자기 완전을 향한 수단으로써 실천될 수 없다.³⁶⁾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욕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롬 14:8; 고전 6:19). 우리는 하나

35)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요 3:12 주석).

36)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175-176쪽.

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롬 14:8; 고전 6:9).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³⁷⁾

또한 갈뱅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열성을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충실히 바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전진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³⁸⁾는 것이다. 그리고 갈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정의 원칙을 말한다. 자기 부정의 일부는 사람과 관계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 부정’의 필연성을 인간의 죄성에 연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인 이웃 사랑과 관계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³⁹⁾ 여기에서 신자의 평화와 인내가 주어지고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뱅은 마태복음 16:24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자기 부정이란 그 범위가 넓다. 우리들의 자신의 지성을 거부하고 육신의 온갖 정욕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전무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 집착되어 있으며 자기에게 몰두하여 자신을 매우 귀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교하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고전 3:18) 그 어리석음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모든 정욕을 유순하게 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노

37) J. Calvin, Inst.(1559) III. 7. 1.

38) J. Calvin, Inst.(1559) III. 7. 2.

39) J. Calvin, Inst.(1559) III. 7. 10.

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b. 십자가의 훈련

갈뱅에 의한 자기 부정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각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 즉 각양 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⁴⁰⁾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⁴¹⁾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 현세 생활의 불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다. 갈뱅은 ‘십자가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치욕, 빈곤, 근친의 죽음, 병 기타의 재난들로 우리를 괴롭히신다. 재난이 있는 동안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곧 굴복한다. 이렇게 자만심이 꺾여 하나님의 힘을 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힘만이 재난을 이기고 굳게 버티는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깊은 지식을 얻게 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와 지조를 과신한다.⁴²⁾

40) J. Calvin, Inst.(1559) III. 8. 1.

41) J. Calvin, Inst.(1559) III. 8. 1-2.

42) J. Calvin, Inst.(1559) III. 8. 2.

또한 깔뱅이 말하는 십자가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시험하고 복종을 가르치기 위함이다.⁴³⁾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며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훈련받는다. 깔뱅은 이것을 마치 말(馬)과도 같다고 한다. 말은 며칠 동안만 호화롭게 놀려두면 사나워져서 제어할 수 없게 되고 타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거칠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한 설교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생애란 누구나 공통으로 받는 어려움에 응하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이법을 주셨던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공히 십자의 짐을 부과하신다. 그러나 이를 자진하여 지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사납고 다스릴 수 없는 말(馬)이 그 타는 자를 태우고 가기는 하나 계속 태우고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참을성은 자기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데 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깔뱅은 “모든 일에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우리는 백방으로 이 순종의 습관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처사를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⁴⁵⁾라고 말한다.

c. 내세에 대한 묵상

우리는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 현세 생활의 불안을 깨닫는 때라야 오히려

43) Comm. Peter 4:12.

44) Comm. Matthew 16:24.

45) J. Calvin, Inst.(1559) III. 8. 4.

진진할 수 있으며 혼련과 고난을 통해서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연기나(시 102:3 참조) 그림자 같다는 것은(시 102:11 참조) 유식한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제일 잘 아는 속담이지만 우리는 이 일처럼 등한시하거나 잘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것처럼 모든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명상하게 된다. 즉 장차 올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현세를 멸시하는 습관을 가지며, 전 생애를 통하여 천국에서 가질 영생을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그침없이 그것을 늘 명상해야 한다.”⁴⁶⁾라고 갈뱅은 피력한다.

그렇다고 하여 현세 생활을 무시하고 불평만하여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신자들은 이생을 경시하는 습관을 배워야 하지만 생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불손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갈뱅은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돼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⁴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세에 대해서 염증이나 증오를 느끼며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남아 있을 각오를 하며 우리의 염증에 불평이나 초조감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哨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⁴⁸⁾는 것이다.

46) J. Calvin, Inst.(1559) III. 9. 4.

47) J. Calvin, Inst.(1559) III. 9. 3.

48) J. Calvin, Inst.(1559) III. 9. 4.

갈뱅에 의하면, '경멸'은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땅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비록 비참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하고 멸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갈뱅은 땅의 생이 하늘의 생과 비교하면 가치가 없지만 이 땅의 생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상의 생을 경멸한다고 해도 생 자체를 경멸할 수는 없고 또 이 땅 위의 생에 낙심하고 그것을 미워해도 죽기를 바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안 여기 머물러 있을 만한 적극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에 대한 목상을 할지라도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내세를 목상하는 경건 훈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위해 정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들을 만드신 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열심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보다 더 곧은 길을 가는 자는 없다.⁵⁰⁾

이처럼 인간이 지상에서의 삶을 경멸하고 거룩한 불멸성을 목상하는 것보다

49)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 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어야' 마땅하다. 곧 우리의 생사가 당신의 뜻에 내맡겨져야 한다는 말이다. ……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죽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 당신께서 계속적인 슬픔과 지루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 전에 떠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에 우리를 소환하실 경우 항상 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을 때만 제대로 질서를 잡기 마련이다. 주의 뜻에 의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질서를 왜곡하게 되는 점을 잊지 말자(롬 14:7-9 주석).

50)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123쪽.

더 확실한 지름길은 없다. 이 같은 목상으로부터 두 가지 규칙이 나온다. 첫 번째 규칙은 이 세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마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에 대해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우리는 동시에 인내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품고 가난을 견뎌내며 풍부한 재화를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는 자처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은 먹고 마시고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무절제함을 제어하라고 명령하신다. 지나치게 큰 야심을 품고 교만하고 까다롭게 집이나 의복이나 생활양식을 추구하지 말며 땅 위의 재물을 청지기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은 어느 날에 회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경영해야 하고 절제, 신중, 자제, 중용을 지향하며 모든 무절제, 교만, 허영, 헛됨을 중요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사랑에 입각하여 경영하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자비와 순결로부터 이탈시켜 마음을 아둔하게 하는 모든 쾌락을 저주하신다.⁵¹⁾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할 수 있다.

d. 기도

깎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주요한 연습(principal exercise)은 기도 하는 것(to pray)이다. 이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참된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⁵²⁾고 한다. 그리고 깎깎은 『기독교 강요』의 기도에 관한 장(章)에서 기도를 ‘믿음의 최상의 실천’⁵³⁾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믿음이

51) 위의 책, 125-127쪽.

52) Serm. on 1 Tim. 2:1-2.

53) J. Calvin, Inst.(1559) III. 20.

복음에서 나는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롬 10:14-17).⁵⁴⁾ 기도는 신앙의 살아 있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토해내는 신앙이다.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 주는 바로 그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은 신앙이 현존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증거이다. 기도를 연습함으로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칼뱅은 기도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파낸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⁵⁵⁾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그리고 칼뱅은 기도하는 이유를 말한다.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줄거나 게으른 일이 없으시면서도, 게으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자며 게으르신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때다 많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간구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⁵⁶⁾

54) J. Calvin, Inst.(1559) III. 20. 1.

55) J. Calvin, Inst.(1559) III. 20. 2.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56) J. Calvin, Inst.(1559) III. 20. 3.

갈뱅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 훈련의 법칙이 있다. 첫째 법칙은 '경외'(敬畏)이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경외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경박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는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 주시며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⁵⁷⁾ 둘째 법칙은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즉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법칙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라는 것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신뢰를 버려야 한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넷째 법칙은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을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명상하는 것은 결코 무용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기도의 원동력이며 말씀을 기초로

57)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거나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게 만드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무하여 기도를 이루도록 힘주시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일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J. Calvin, Inst.(1559) III. 20. 5.

한 믿음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이다.58)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이 됨을 알 수 있다. 갈벱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생활에 대한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살전 4:3, 7; 엡 1:4 참조). 이때에 신자들에게 의무를 알려주며 거룩과 결백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다.”59)는 것이다.

E. 훈련의 장으로 삶의 전 영역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 대한 원리적이면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즉 삶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기초로서 믿음,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삶, 또한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의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 속에 있고 이 속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기에 삶의 모든 영역과 분초의 시간도 빠짐 없는 전시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훈련의 삶이 전 영역이라 하여서 삶의 모든 면이 동등하거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은 교회가 기초가 되면서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고 연장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흘려 세우신 그의 몸이며 성령이 머물고 역사하시고 성화의 훈련시키시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훈련의 영역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적이다.

58) J. Calvin, Inst.(1559) III. 20. 4-27.

59) J. Calvin, Inst.(1559) III. 19. 2.

1. 교회에서 훈련의 삶: 은혜의 수단과 훈련의 장소

갈뱅은 『기독교 강요』 제Ⅲ권에서 개인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논의하였으며, 이때 그의 주된 관심은 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였다. 그런데 제Ⅳ권에서 그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⁶⁰⁾에 대해 서술한다.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로 옮겨가는 것은 갑작스런 비약이 아니며 구별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독교 강요』 Ⅲ권과 Ⅳ권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다.⁶¹⁾

기독교적 삶을 위한 교회의 중요성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독교적 삶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 지켜 주며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 간에도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진다. 셋째,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적합한 환경과 훈련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해 준다.⁶²⁾

a.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의 교회

교회의 존재 근거가 교회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전제는

60) J. Calvin, Inst.(1559) IV. 1. 1.

61)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178쪽.

62) 위의 책, 179쪽.

갈뱅의 교회론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갈뱅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은 인간의 자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이다. 즉 교회의 기원(origin)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모여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함을 입고 보호받는 이유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한다.”⁶³⁾

갈뱅은 교회의 존재에 대한 신적 기초를 적어도 네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로, 교회는 택함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제네바 요리문답은 교회를 “하나님이 영생으로 예정하신 신자들의 공동체”(the body and society of believers)⁶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판본들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최종 편집본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⁶⁵⁾라고 분명히 선포한다. 둘째로, 교회의 존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이미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일평생 죄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⁶⁶⁾ 셋째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표징들(marks)은 그 자체의 특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발견된다. 교회는 조직이나 도덕적 특성 때문에 교회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전이 있기 때문이다.⁶⁷⁾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역사하심이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를 위해 결단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만 생명을 가지고 내·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례전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⁶⁸⁾ 성례전은 믿음을 증진시키고 살찌게 하며 강화시키기에 기독교적

63) CR 31:439, 위의 책에서 재인용.

64) CR 6:40. 위의 책. 180에서 재인용.

65) J. Calvin, Inst.(1559) IV. 1. 2.

66) J. Calvin, Inst.(1559) IV. 1. 21.

67) J. Calvin, Inst.(1559) IV. 1. 9.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뱅은 주님의 만찬이 매주일 예배 시에 행해지기를 소원했다. 세례는 사람들이 교회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는 입회 의식으로서의 성례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음을 보여 준다. 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접붙여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특전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만큼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신적 특성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갈뱅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the reign of God)라고 정의한다.⁶⁹⁾ 그의 통치는 최후 심판 때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권은 신자들의 삶의 주인임을 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인의 삶을 보호하시고 뒷받침해 주고 계심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교회는 존재하게 되고 보전되며 통치를 받는다. 기독교적 삶이 존재하고 성장하도록 길러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기독교적 삶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 안에서 신자들을 양육하시는 장(場)으로서 중요하다. 경건훈련의 삶은 인간적인 성취나 인간 의지의 결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 법으로서의 말씀이 경건훈련의 삶에서 올바른

68) 성례가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내적 교사인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다(J. Calvin, Inst.(1559) IV. 14. 9).

69)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를 그의 명에 아래 두고 욕망을 버리면서, 그의 다스림에 가까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복종할 때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통치하신다고 할 수 있다. ……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은 곧 옛 사람의 파멸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부인을 의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CR 45:197, 위의 책에서 재인용).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b.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아시고 교회가 지닌 힘과 독특한 특성의 원천이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칼뱅의 교회론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는 신비하고 인격적인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성령께서는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끈(the bond of union)인 것이다. 그러나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단순히 묶어 주는 끈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⁷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형제나 자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칼뱅은 “아무도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분량에 만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떨어져 나가 혼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⁷¹⁾고 하였다. 그래서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는 전체로서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때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즐기라고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함께 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한 몸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눈과 발과 손, 그리고 다른 많은 지체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한다. 칼뱅은 “교회의 조화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각기 직임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한 가지로 조화를 이루

70) 위의 책, 188쪽.

71) CR 49:500.

는 것이다.”72)라고 하였다.

그리고 갈뱅의 교회론이 가지는 유기적 특성은 모든 분파주의를 반대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에 때문에 교회도 하나라는 것이다(엡 4:4-6). 갈뱅은 제 침례파에 속한 사람들(the Anabaptists)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무엇 보다도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천사보다 더 거룩해 보일 때까지라도 만일 우리가 뻔뻔스럽게도 스스로 기독교공동체를 벗어나 마귀의 친구가 된다고 하면 다른 어디에서도 죄의 용서나 구원은 없는 것이다.”73)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할 필요가 있다. 갈뱅은 사람이 혼자서 참된 경건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앙개인주의를 철저히 거부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도 기독교적 삶의 영적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제네바 요리문답은 “사람들은 모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공기도를 드리며 신앙고백을 하여야 한다.”74)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행함 속에서 형제 각자가 서로에게서 신앙고백을 받으며, 그의 본을 보고 자극을 받아 따라 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강화시킴은 각 지체들이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받은 은사를 성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c. 통치와 훈련기관으로서의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체험의 순수한 자연발

72) CR 49:497

73) CR 7:77.

74) CR 6:65.

생에 의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조직과 훈련은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데 비록 결정적인 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富)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⁷⁵⁾

하나님은 교회의 품 속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실한 신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갈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⁷⁶⁾

그리고 갈벱에 의하면 교회의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속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온 교회 정치 질서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분들이다.”⁷⁷⁾라고 했다. 성경의 본문 그대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습과 적절하다는 판단과 인간다움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교회생활의 세부사항까지도 하나님이 성경말

75) J. Calvin, Inst.(1559) IV. 1. 1.

76)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키프리안의 말을 인용한다(J. Calvin, Inst.(1559) IV. 1. 1).

77) J. Calvin, Inst.(1559) IV. 4. 1.

씀을 통하여 주신 일반규칙에 따르고자 하였다.78)

그리하여 칼뱅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을 ‘질서’(order)라는 말에서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와 인간 실존의 삶을 위해 적절한 질서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런 질서는 뒤틀려 버렸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칼뱅은 교회를 그런 ‘질서회복의 역사’79)로 이해하였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그 거룩한 공동체의 조화된 조직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사람 됨을 발견하게 된다.”80)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신앙과 생활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이러한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조직이 중요하다. 특히 교회의 통치조직과 훈련(discipline)에서도 그러하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같이 훈련(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81)는 것이다. 훈련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더럽고 타락한 교인들 때문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훈련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선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의 나쁜 영향에서 지켜주는 것이다. 셋째로, 훈련은 죄에 빠진 자가 도움을 얻어 다시 온전해

78)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이다(J. Calvin, Inst.(1559) IV. 10. 30.). F. Wendel은 칼뱅은 “원시교회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라고”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Wendel, Calvin, pp. 229f).

79) Benjamin Charles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J. Brill, 1970), p. 195.

80) David Little, *Religion, Order, and Law : A Study in Pre-Revolutionary England*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9), p. 68.

81) J. Calvin, Inst.(1559) IV. 12. 1. 필자는 ‘권징’(discipline)이라 번역된 용어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넓고 적합한 의미라 생각한다.

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⁸²⁾ 그러므로 “훈련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⁸³⁾는 것이기에 교회의 훈련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

갈뱅의 제네바 목회는 훈련된(disciplined) 기독교 공동체를 수립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특징지어진다. 갈뱅의 잘 조직된 제네바 교회를 위하여 저술한 『교회 법규집』(*Ecclesiastical Ordinances*)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글 중의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고 생각되는 지위가 네 가지 있다고 생각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교육을 하고 장로들로 더불어 치리(治理: disciplining)를 행사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사(doctors)는 ‘신자들을 참된 교리로 가르치는’ 책임을 지는 선생들이어야 했다. 교사들은 목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지위였다. 장로들은 목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감독하는 지위였다. 마지막으로 집사들은 교회가 베푸는 사랑의 사역, 특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직책을 맡은 이들이었다.⁸⁴⁾

이 중에 으뜸은 훈련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독교 교리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지식이 기독교적 삶을 살게 하는 데 본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네바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요리문답 교육은 교회의 예배 다음으로 강조되었다.⁸⁵⁾ 갈뱅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무엇을

82) LCC, XXI: 1232-1233(IV, xii, 5).

83) 위의 책.

84)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John Knox Press, 1981) 이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9), 180쪽.

85)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 지침서(catechism) 없이 결코 지켜지지 않

왜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무지는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게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규적인 교리 문답 교육 프로그램은 질서가 잡힌 교회로서는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경건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삶의 통치와 훈련 및 통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 존 낙스(John Knox)가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학교’⁸⁶⁾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의 훈련은 교회 내에서만 머물게 되는가? 갈뱅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갈뱅의 국가론이나 사회에 대한 사상 뿐 아니라 제네바 시에서 행한 그의 사역에서 구체적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2. 국가(사회)에서 훈련의 삶

갈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참다운 경건, 사랑,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독교

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알곡이 죽어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대대로 이어가며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종자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곧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세우고 싶다면, 어린아이들이 좋은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것은 간명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되어야 하되 참 기독교의 정수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교리교육 지침서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룰 것이니,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해서 누구나 가르쳐지는 것에서 유익을 얻게 해 줄 것이요, 또 어떤 건방진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전할 때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해 줄 것이다”(CR 13:71-72).

86) David Laing, ed., *The Works of John Knox*(Edinburgh : John Stone & Hunter, 1855), 4 : 240.

강요』를 전통적 교의학처럼 천국과 지옥, 부활, 영생 등 종말론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정부’(the civil magistrate)에 관한 힘 있는 장으로 끝내고 있다. 이것은 칼뱅이 정부를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요 신에 의해 제정된 기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⁷⁾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훈련(discipline)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한다. 한편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 역할은 단순히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가는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지켜 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각기 독립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양팔이 된다. 거기에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님도 되신다. 유일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교회와 국가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칼뱅은 국가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재세례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 수립된 것이고 관리들도 하나님에게서 임명된 가장 신성한 소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국가도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빛이 교회로부터 주변의 공동체에게로 끊임없이 비취게 하여 전 인류가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훈련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국가⁸⁸⁾

87)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144쪽.

88) 칼뱅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이 이중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확립했고, 영혼 즉 속사람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관계된 통치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자세히 논했으므로, 여기서는 둘째 통치—즉 시민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만을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기초로 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국법질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적인 공동체이다. 칼뱅은 국가를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개체로 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통치’라고 말하는데,⁸⁹⁾ 이 세계의 통치는 신의 섭리와 거룩한 제정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칼뱅은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다고 전제하면서 인간은 타락하여 죄악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와 공무원제도를 인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의 권위에 의해 지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통치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칼뱅은 루터와 같이 사람의 영혼이나 영생에 관계되는 정부와 시민적인 제 기관이나 행위를 다스리는 외적 규율에 관계되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로 나누었다. 그러나 루터는 신앙과 행위라는 이원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즉 세상의 법률 본위의 정부와 교회의 복음 중심의 정부 간에 지상적인 연관성을 지적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신국과 세상국가 간의 관계와 같은 개념을 설정하였다. 칼뱅은 루터와는 달리 세상의 국가나 신국이 다같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통치자들은 신의 위탁을 받은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⁹⁰⁾ 즉 “하나님의 세계 통치방식은 대개 그가 간접적으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에 기초한다.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고 지금은 그의 도움을 얻어 통치하신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신의 대리 행사자요, 지상의 모든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주권의 모사물(模寫物)이다.”⁹¹⁾

확립하는 통치—에 대해서 논하겠다.”고 한다. J. Calvin, Inst.(1559) IV. 20. 1.

89) W. Nis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24쪽.

90) 이태연,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2), 93쪽.

91) W. Nis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25쪽.

국가는 인간 악행의 치료제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온전함을 잃지 않고 지니고 있기만 한다면 적어도 강제로 질서를 유지해 가는 국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⁹²⁾ 그러나 관료의 권위는 인간의 악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나온다. 칼뱅은 “집권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⁹³⁾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 즉 대리자로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패악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는 뜻이다. 정권은 하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는 것이다.⁹⁴⁾ 그러므로 국가는 단순히 죄에 대한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약인 것이다.

칼뱅의 이런 국가에 대한 존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의 지배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해 투쟁하였다. 국가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한 법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칼뱅은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종교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시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건에 대해서 법을 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⁹⁵⁾고 하였다. 국가가 교회의 치리와 예배에서 협의체의 독립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칼뱅은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국가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국가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교회를 위하여 힘든 싸움을 하며 제네바에서 그의 목회생활의 삼분지 이를 보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두메르그

92)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287쪽.

93) J. Calvin, *Inst.*(1559) IV. 20. 4.

94) 위의 책.

95) J. Calvin, *Inst.*(1559) IV. 20. 3.

(Doumergue)는 갈뱅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⁶⁾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공통으로 모시는 주님의 통치하에서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여야 한다.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는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올바른 교리와 예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계명을 범하는 자는 처벌한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서로 조화하며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 둘은 다같이 죄를 저지하려는 기관인데 국가의 업무는 일반은총 부분에 속하였고, 교회의 직무는 특별은총의 부분에 속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다같이 적극적으로 사회의 도덕심을 높여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도록 힘써야 하는데 교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작용을 하나 국가는 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 교회와 국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교회법은 오직 영적인 정체성의 보존을 위해 존재하지만 국가의 법질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b. 국가 통치와 법

국가가 정부를 수립하여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규범이 법률이다. 갈뱅은 “국가 조직에서 집권자 다음가는 것은 법률이다. 법률은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이다. 법률이 없으며 집권자의 지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집권자가 없으면 법률에 힘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은 무언

96)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211쪽.

의 집권자요 집권자는 살아 있는 법이다.”97). 그리고 갈뱅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은 어떤 것이며 어떤 법이 사람 사이에 실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도덕에 관한 율법, 의식에 관한 율법 및 재판에 관한 율법을 구별한다.98)

갈뱅은 이 법의 근본원리에 부합하는 인간의 법을 함하여 하나의 광범위한 법체계를 상정하였다. 하나님의 법에 공통되는 최고의 원리는 사랑인데 이것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십계명은 부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놀라운 사랑의 법이 들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강령은 모세 율법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원리이다.

이처럼 율법이란 신의의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존속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통해 선포된 것인데 율법 중 항구불변의 요소는 도덕적 율법이며 도덕적 율법을 위한 의식적 율법과 재판적 율법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해치지 않는 한 변경 내지 폐지가 가능한 가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구불변의 도덕률로서의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율법과 복음을 모순 없이 연결한다. 인간이 양심을 통해 자연법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연법(*lex naturae*)은 신법(*lex Dei*)에 근거를 둔다. 법은 형평을 추구해야 하며 이 형평은 모든 법률의 목적이고 원리일 뿐 아니라 법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형평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올바른 규범과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갈뱅은 교회와 국가가 다른 원리에서 있는 실체로서 구별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그렇다고 양자를 분리시키려는 입장은 아니었다. 갈뱅이

97) J. Calvin, *Inst.*(1559) IV. 20. 14.

98) 위의 책.

영적 지배와 국가의 통치를 구별하고자 한 것은 교회가 세속 권력을 지배하려 했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재세례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의 지배 아래서도 얼마든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재세례파들은 초등 학문에서 죽었고 하늘나라로 옮겨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타락한 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기독교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국가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갈뱅은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를 구별하지만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서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 양자의 오류를 비판하고 교회와 국가의 정당한 관계를 제시하여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을 올바르게 향유할 있도록 하였다.⁹⁹⁾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은 교회당 안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교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주로 받지만 국가에서의 삶은 경건의 훈련을 실제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부딪히면서 받고 삶의 구체적 현장에 적용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법을 지키면서 국가의 법을 동시에 준수하면서 삶의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3.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개혁 훈련

여기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사회적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갈뱅이 살았던 제네바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갈뱅의 생애에 있어서 제네바는 어떤 곳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99) 이은선, 『갈뱅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98쪽.

제네바의 상황 및 개혁에 대해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a. 갈뱅의 생애에 있어서 제네바(Geneva)

1536년 3월에 갈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바젤(Basel)에서 출판한 후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서 살기 위해서 파리(Paris)로 가서 가사 일을 정리하고, 그의 동생과 함께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왕 프랑수와 I 세와 독일 왕 칼 5세의 전쟁으로 인해 빠리로부터 스트라스부르그에 이르는 도로가 차단되어서 남쪽 우회 도로 상에 있는 제네바를 경유해서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려고 했다. 제네바는 인구 13,000명 가량의 도시로 일찍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가톨릭을 거부하였는데 가톨릭주의가 추방된 후 공백기간에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사역에 의해 제네바 시민들의 혁명사상이 개발되었다. 갈뱅은 당초에는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려 했으나 파렐(Farel)의 위협적인 호소에 굴복하여 제네바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교사=doctor)로 활약했다. 1537년에 불어판 ‘제네바 요리문답’(Catechismus Genevenis Prior: 라틴어판은 1538년)과 ‘제네바 신앙고백’(Confession de la foi de Geneve)이 확정되었다. 이 신앙고백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매주 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베푸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성만찬을 둘러싼 치리(훈련=discipline)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성만찬이 이렇게 중요시됨에 따라 교회의 치리와 훈련도 엄격하게 수행될 것을 주장했다.¹⁰⁰⁾ 급기야 갈뱅은 그의 동역자들인 파렐과 비레(Peter Viret)와 함께 성찬의식

100) 당시 교황주의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1년에 두세 번 정도 성만찬에 참석케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갈뱅은 매주 예배 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너무 혁명적이어서 갈뱅은 결국 매월 한 번 정도 성만찬을 베풀어야 한다고 양보했다. 결국에

문제로 시의회와 갈등 끝에 파면을 당한다. 즉 시의회는 1538년 4월 23일에 갈뱅과 파렐의 추방을 결정하여 갈뱅은 바젤로, 파렐은 뉘샤텔로 떠났다.

그리고 갈뱅을 부쩌(Bucer)를 만나게 된다. 부쩌는 파렐이 제네바에서 갈뱅을 협박조로 설득하였던 방법을 재현하여 바젤에 머물고 있던 갈뱅을 스트라스부르 그로 초청하는 데 성공하였다.¹⁰¹⁾ 갈뱅은 스트라스부르¹⁰²⁾에 있는 프랑스 이민교회 목사로 취임하면서 1538년 11월에 성찬식을 집례하였다.¹⁰³⁾ 그는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 재판(1539년)과 『로마서 주석』(1540)을 출판하고, 라틴어 기독교 초판(1536년)을 1541년에 불어로 번역 출판했다. 갈뱅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동안에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사돌레토(Jacopo Sadoletto)가 제네바 시민들을 로마 가톨릭으로 회유하기 위하여 글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인물이 그곳에는 없어서 제네바는 갈뱅에게 이 반박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 반박문의 탁월성 때

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도 베풀기로 확정되었다.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 사이의 연합을 재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을 더욱 두텁게 하고, 따라서 신앙과 순종을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269-271쪽.

101) 갈뱅은 이런 사실을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파렐이 나에게 행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르틴 부쩌는 나를 다시 새로운 임지로 초청했다. 그가 나에게 보여 주었던 요나의 예는 나를 완전히 굴복시켰고, 나는 다시 가르치는 직분을 수락했다”(CO 31, 28).

102) 이곳은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의 남부 지방이었는데(지금도 프랑스 영토임) 프랑스의 종교 강압 때문에 피난은 난민들이 몰려들어 종교 망명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갈뱅은 이곳에서 3년간 머무는 동안(1538-1541)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식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103) 갈뱅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베풀었다. 또 그는 이 성만찬에 참석코자 하는 이들은 미리 알리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정하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만찬을 둘러싸고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은혜를 신앙으로 받는 일만 아니라 이 성만찬은 성화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의 책, 272쪽.

문에 칼뱅은 제네바 시민들에게 명성이 퍼졌고, 3년 전과는 달리 칼뱅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제네바 의회는 칼뱅을 다시 오도록 여러 번 초청했다. 그러나 칼뱅은 이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하다가, 부져 등의 권유로 일정 기간만 머물겠다고 약속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다시 제네바로 옮겼다.

1541년 9월 13일에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와 개혁가로서 다시 허물어진 질서를 세우는 데 헌신하였다. 그는 복음 통한 도전과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 곧 가정문제,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제단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직분을 위해 모든 인간 생활 중심에 왕권을 요구하셨던 것이다.¹⁰⁴⁾

먼저 칼뱅은 1541년의 “교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을 만들어내는 일에 열중하였다. 교회법은 목회적인 의도와 크리스천의 삶 전체를 규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칼뱅은 교회가 참으로 질서가 잡혀 지려면 4중적인 직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목사, 교사(doctors),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교회의 주된 임무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며,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순종을 가르쳐야 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¹⁰⁵⁾ 이 교회법에서 그는 참된 개혁 교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종류의 목회를 언급하였다. 또한 교회법과 더불어 그는 이미 그가 1537년에 제네바 교회를 위해 썼던 교육서를 대신하여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서』(a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를 만들었다. 1542년에는 제네바 교회에 『기도와 찬송의 형식』(Form of Ecclesiastical Prayers and Hymns)이라는 책을 마련해 주었다.

104)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Baker House, 1988),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48쪽.

105) 위의 책, 277쪽.

1555년에 이르러 갈뱅은 자신의 소명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제네바의 공공 복지를 가져오는 교회와 세상 간의 신성한 유대이다.”¹⁰⁶⁾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영역을 넓히셨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제네바와도 결속되어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갈뱅이 제네바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해결해 나갔음을 주의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교회법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돌보는 제도를 보다 실제적으로 개선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였다. 갈뱅이 제안한 것은 사회개조(social reconstruction)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정화(social sanctification, 社會淨化)에 대한 계획이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였다.

b. 제네바¹⁰⁷⁾의 개혁 훈련과 컨시스토리(consistory)¹⁰⁸⁾

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훈련(규율)

106) C. L. to Nicholas Zerkinden, Februry 21, 1556.

107) 제네바는 갈뱅이 살던 당시의 전세계의 생활상을 매우 만족할 만하게 반영해 주는 하나의 소세계(a microcosm)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그곳에는 귀족 계급의 사람들뿐 아니라 중류 계층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존했으며, 상업가, 장인(匠人), 노동자, 학자, 상인, 소(小)사업가, 전직 관료, 신자와 불신자, 동성애자들 그리고 범죄자와 창녀들이 살았다. 제네바에서 발생한 문화, 정치 그리고 교회문제들은 유럽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108)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당회 혹은 종교법원으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16세기 컨시스토리의 설립동기와 활동 내역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굳이 따로 번역하지 않고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칭하여 그 본래의 뜻을 살리고자 한다.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18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9쪽).

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결코 유지할 수 없다.”¹⁰⁹⁾고 하였다. 가정, 교회, 사회나 국가와 같은 사회적 그룹에 있어 훈련이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 곧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미덕을 의미한다. 제네바에서 훈련에 관한 견고한 전통을 확실히 보급하려 한 칼뱅의 염원은 개인의 복지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뿐 아니라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한 그의 바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롯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훈련과 더불어 칼뱅은 말씀과 성례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강조했다. 1537년 제네바 의회에 제출한 교회 목회의 본질에 관한 첫 번째 논문에서 그는 만일 제네바의 시민들이 이 신비에 참여한다면 이는 그들이 “기독교적 양식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결국 칼뱅은 성찬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복음을 역설하였다.¹¹⁰⁾

그리고 칼뱅은 1541년에 작성한 “교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에서 권위를 갖고 교회 훈련(church discipline)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제네바에 세워져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컨시스토리(Consistory)¹¹¹⁾, 즉 ‘종교 법원’ 혹은 ‘치리회’라고 불렸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몸소 보여주시고 제정하신 일들에 대해 영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1542년 칼뱅의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상담 및 교육, 훈련(권징)기관이다. 이것은 칼뱅의 신학이 구체적인 목회의 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컨시스토리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서기와 소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것이 원칙이었

109) J. Calvin, *Inst.*(1559) IV. 12. 1.

110)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Baker House, 1988), pp. 32-34.

111) 컨시스토리 연구는 좁게는 16세기 평신도들의 삶을 통하여 칼뱅의 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되었는지를 알려 준다. 또 넓게는 16세기 이후 개신교회들의 성도의 훈련과 권징제도를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18집, 161쪽).

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만나기도 하였다. 목사들의 경우는 제네바시 있던 목사들이었고 장로들은 시의원들 중에서 매년 컨시스토리의 일을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교회법에 의하면 컨시스토리에서 활동할 장로들은 “소의회에서 두 사람, 60인 의회로부터 네 사람 그리고 200인 의회에서 여섯 사람을 뽑되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책망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신중성을 가진 자”¹¹²⁾라야 했다. 이들의 주업무는 제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잘 살피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처럼 권면하고, 목사회(The Company of Geneva Pastors)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함께 형제에 훈련 혹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자들을 소환하고 훈계하며 출교하는 권징을 실행하였다. 목사들은 컨시스토리의 일이 목사의 일로 간주되어 무보수로 일한 데 반해 장로들은 컨시스토리 회의에 참석한 만큼 연말에 사례를 받았다.¹¹³⁾

따라서 컨시스토리는(Consistory)는 교회 내에서 설교 중에 웃는 무례한 행실을 다루었고 설교를 비난하는 자들이나 대화 중에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을 책망하였다. 또한 신성모독, 저주, 거짓말, 사기, 불량 서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것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점 보러 다닌 자들이나 미신적인 부적을 간직하고 다녔던 자들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였던 자들, 가톨릭의 관례로 다시 돌아간 자들 등 미신적 행위의 경우들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였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을 방지하고자 힘썼다. 또한 주일에 카드 놀이를 하는 자들, 어느 날이든 놀음을 하는 자들, 부도덕한 댄스 파티를 개최하는 자들, 폭음, 술취함, 우상 숭배, 간통이나 매춘 등의 죄를 범한 자들을 소환하였다. 그리고 종교 법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집안

112) *Ordinnances Ecclesiastique*, in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eve autemps de Calvin*, vol. I (Geneve: Librairie Droz, 1964), p. 2, 위의 책 163에서 재인용

113)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p. 188, 위의 책 164에서 재인용.

싸움에 중재하거나 충고하였다. 이러한 컨시스토리의 관리하에서 무절제한 방종과 부도덕한 행실들은 잔뜩 위축되었다.¹¹⁴⁾

그리고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화를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부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사용하여 타인들의 소유를 획득할 수 있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시 당국은 무역이 활발해지도록 그것을 권장할 뿐 아니라 부가 부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부의 흐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칼뱅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위해 중요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부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칼뱅에 의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소유물을 주고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한 국면 곧 돈이나 소유물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동체를 통해 아래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순환에는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⁵⁾

이처럼 교회 훈련(ecclesiastical discipline)만으로는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칼뱅의 단호한 입장이었다. 컨시스토리가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담당하기로 하여 출범하지만 그 활동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칼뱅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치적 대세를 장악한 1555년 이후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도의 훈련은 단순하게 성도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에 의하면 성도의 훈련과 권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범된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울 수 단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⁶⁾

114)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73-74쪽.

115) Ade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John Knox Press,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서울: 성광문화사, 1985), 55-59쪽.

그리고 우리는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에서 행해진 재판 절차를 이해함에 있어 당시의 관습(customs)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당시 유럽의 여러 지방 자치주에서는 시민들의 도덕이 상세한 규칙(detailed regulations)에 의해 통제되었다. 우리는 컨시스토리의 재판 판결문을 통하여 제네바가 그러한 법과 관습에 매우 엄격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종종 간통죄를 범한 자들은 1년 동안 그의 정부(情婦)와 함께 거리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후 추방되었으며 매춘부들은 격리되어 통제를 받았다. 이때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갈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목회적(pastoral)이었다. 갈뱅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해결책을 찾는데 기울인 관심만큼이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별히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 목회적 차원에서의 도움을 주려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질서를 세우는 훈련은 말씀의 법에 기초해 있으며, 이 말씀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였다. 특히 교리 문답 교육이 강조된다. 신자는 그가 믿고 있는 도리를 알고 확신해야 한다. 교리 문답 교육을 마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교회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도 없었다. 갈뱅은 섬머셋 공작(the Duke of Somerset: 에드워드 6세 치리하의 첫 번째 섭정자이었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작이시여! 교리문답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문자로 된 양식으로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교리 교육은 일치(一致)를 도모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게 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나이에 맞는 언어로 된 훌륭한 교리문답이어야 합니다.”¹¹⁷⁾라고 하였다. 1545년에 갈뱅

116)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18집, 170-171쪽.

117)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Baker House, 1988),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은 제네바를 위한 교리문답서를 편찬했고, 1558년 1월에는 대학 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임명되고 대학이 설립될 장소가 결정되었다. 칼뱅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베자(Theodore Beza)가 초대 학장이 되었다. 이로써 칼뱅은 복음 선포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였다.

요약하자면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훈련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칼뱅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중심으로 실천한 사회적 성화의 개혁훈련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믿음으로 이끌며, 성화 생활과 경건 훈련의 지침과 길잡이는 하나님의 율법임을 말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로 깊이 확장되어 삶의 전영역 속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훈련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잡이와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은 타락했기 때문에 단순한 응급조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발휘할 뿐인가? 또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대립되기만 하고 연관성이 없단 말인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와 특성이 있는가? 그리고 율법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는 무엇이며 신약의 산상수훈으로 십계명은 빛을 상실하는가?

Ⅲ. 창조에서 복음에 이르는 율법 이해

지금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위해 갈뱅의 사상 전체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총체적인 법, 즉 창조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이르는 율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율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율법이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어진 구약의 법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타락과 구속 및 회복에 걸쳐 신·구약성경 전체의 의미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창조질서에서 자연법은 무엇이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자연법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도덕법의 십계명은 자연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살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국가사회도 중요한 영역이기에 실정법을 자연법과 십계명의 관계 속에서 차이점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의 뿌리를 추적하면서 십계명의 서문의 의미와 해석의 주요 원리를 살필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통해 율법의 제3용도의 근거와 이유를 찾고자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갈뱅신학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갈뱅이 말하는 율법은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종교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¹¹⁸⁾ 이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범위를 좀더 좁혀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계시하신 십계명(도덕법)을 의미한다. 이 도덕법은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주신 의(義)의 참되고 영원한 표준'¹¹⁹⁾이며 가장 중요하다. 셋째는 각종 민사법과 재판법과 의식(儀式)법이다.

118) 나는 '율법'이라는 말을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 원칙을 가르치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종교형태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J. Calvin, Inst.(1559) II. 7. 1).

이 가운데 의식법과 재판법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폐기되었다. 의식법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표였던 의식의 실체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림자였던 의식법의 제사는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¹²⁰⁾ 반면에 재판법은 유대 민족의 통치를 위해 주신 것으로, 그들이 허물 없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공평과 정의의 형식들을 정하신 것이었다. 이 재판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구약의 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폐지되었다. 결국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율법인 도덕법이다. 갈뱅에 의하면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정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의의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¹⁾는 것이다.

갈뱅의 신학에서 율법은 그 위치에서부터 중요한 의미와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갈뱅 자신의 저술 가운데 율법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의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율법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119) J. Calvin, Inst.(1559) VI. 20. 15.

120) 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식을 끝내셨지만 그 신성성(神聖性)은 조금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시인하시며 존중하셨다. ……우리는 의식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얼마나 유용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의식들을 폐지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효력을 확인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J. Calvin, Inst.(1559) II. 7. 16.

121) J. Calvin, Inst.(1559) IV. 20. 15.

다음과 같다. 갈뱅의 『기독교 강요』 I 권 6-10장¹²²⁾까지 성경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갈뱅 자신의 율법 이해가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II 권 7-8장에서는 율법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9장 서두를 말하면서 10장에서는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9-11장까지는 율법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신·구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한다. 특히 바로 뒤에 그리스도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III 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유, 칭의와 성화 등에서 율법의 제3사용의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율법의 위치는 율법 이해에 대한 구조적이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 준다고 하겠다.

이런 배경과 구조하에서 율법을 이해할 때, 먼저 창조에 있어서 자연법과 도덕법인 십계명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창조질서에서 자연법과 십계명(도덕법)

122) 이부분은 갈뱅의 성서론이라 할 수 있다. 6장: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7장: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9장: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10장: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있다.

갈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놓은 내면적인 법이 있는데 이를 자연법이라고 하였다. 이 법은 마음에 기록된 법으로 “양심이 옳고 그름 사이를 충분히 분별하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증거”하도록 하는 양심이다. 양심은 창조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옳고 그름의 자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관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인간의 감시자이다. 따라서 양심은 갈뱅에 있어서 자연법과 함께 내적인 법(inward law)을 구성한다.¹²³⁾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본성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사이에 일치가 있다.”¹²⁴⁾고 하였으며, “자녀들의 순종이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자연법칙(*naturae Legem*)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섭리”¹²⁵⁾라고 말한다. 자연의 질서는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 의지의 ‘질서 정연함 혹은 지속성’을 가리킨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현재 자연의 묘사이기보다는 원래 창조 당시의 자연의 묘사이다.¹²⁶⁾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법은 희미해져서 그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내면적인 법을 새겨 주셨지만 타락한 후에 이것은 오류의 흑암에 덮여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셔서 희미해진 자연법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하신다. “주께서는 우둔하고 또 거만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우리에게 성문법(成文法)을 주시고, 선천법(자연법)에서 너무도 희미했던 것을 더욱 분명히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한 감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123) 김철영, “갈뱅의 율법관에 드러난 자연법 이해”, 『장신논단』 제15집 (1999), 335-337쪽.

124) *Sermon I Tim. 5:4-5, Sermons on Timothy and Titus* (The Banner of Truth and Trust, 1983), p. 458.

125) 엡 6:1(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석

126)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p. 67.

다.”¹²⁷⁾라고 갈뱅은 말한다. 한마디로 도덕법이란 자연법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자연법과 도덕법은 구별되어야 한다. 타락 이후에 자연법은 왜곡되었고 불명확해졌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자연법에서 거꾸로 십계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¹²⁸⁾ 이 점에서 자연법을 타락을 기점으로 구분하자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본성과 자연 질서에 대한 자연법이 있고, 타락한 후에 인간 안에 남아 있는 공통적인 본성과 자연 질서에 입각한 자연법이 있다.¹²⁹⁾ 갈뱅은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초자연적인 부분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나, 자연적인 부분은 훼손된 채로 남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인간은 공통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새겨 준 양심이기도 하며 타락 후에 남아 있는 자연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갈뱅은 자연법을 인정하였으며 이 용도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연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 뿐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는 곳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에 의해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운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에게 이 법 지식이 부여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

127) J. Calvin, Inst.(1559) II. 8. 1.

128) 여기서 갈뱅은 도덕법과 자연법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자연법의 독립적 권위를 인정했던 스콜라주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129) 갈뱅은 본성(nature)도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한다. 창조되었을 때의 본성과 타락 후의 본성이다(J. Calvin, Inst.(1559) I. 1. 2).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자연법은 완전하여 흠이 없었고 다른 것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법은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방인들의 우선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될 것이겠기에 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고 바울은 즉시 첨부한다. 이것은 그들이 공정한 정죄를 받는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연법은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유죄를 증명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¹³⁰⁾

그러나 자연법은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타락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능력들, 특별히 이성(ratio)과 오성(intelligentia)을 묘사하는데 자연적인 재능들은 부패되었으나, 초자연적인 것과는 달리, 죄에 의해 말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갈뱅은 “초자연적인 천품들은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품들은 부패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理性)은 남아 있다.”¹³¹⁾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적 능력은 천상의 일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세상과 현세에 관련된 지상의 일은 이해할 수 있다. 즉 최악된 인간조차도 이성의 빛을 결여하지 않고 이성과 오성의 보편적인 이해력을 나타낸다.

인간의 오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땅의 일, 즉 현세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 ‘땅의 일’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공의, 또는 내세의 정복(淨福)에 속하지 않은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세에 관해서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현세의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하늘의 일’은 하나님과 진정한 의의 본성과 하늘 나라의 신비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의미한다. 처음 것에는 정치와

130) J. Calvin, Inst.(1559) II. 2. 22.

131) J. Calvin, Inst.(1559) II. 2. 12. “지성은 바른 길을 따르는 듯이 보일 때에도 절름거리며 비틀거린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씨앗이 모든 사람 속에 심어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현세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이성의 빛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Inst. II. 2. 13).

경제, 기술과 문예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간 생활에 유용한 학술과 기예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된다. 갈뱅은 이러한 현세적인 영역에 관련된 재능도 타락한 인간의 내부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병든 신체에도 아직 다소의 생명력은 남아 있는데 이 죽음의 심연에 빠진 영혼은 여러 가지 죄악의 짐을 졌을 뿐 아니라 선한 것이 전연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는 은혜로(보편은총) 많은 선물을 인간성에 남겨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³²⁾라고 갈뱅은 말한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인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 것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뜻에 합치하게 하는 원칙에 대한 지식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 통찰은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같은 그의 호의, 즉 우리의 구원을 알며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우리는 두더지보다 눈이 더 어두워져 알지 못하지만 셋째 영역은, 비록 그것이 하늘의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바르게 살아가는 원칙을 아는 것’과 연관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식’(Inst. II. 2. 22)이라 불려지는 이 영역에서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다른 두 영역에서보다 분명하게 민첩함을 드러낸다. 여기서 갈뱅은 로마서 2:14-15¹³³⁾을 인용하면서 자연법에 의해 사람이 행위의 바른 표준을 충분히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만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이 지식

132) J. Calvin, Inst.(1559) II. 3. 2; 2. 15.

133)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4-15).

이 아무리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들 역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선악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⁴⁾

그러므로 중생하기 이전의 자연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는 전혀 무능력하나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보편적인 판단력은 있다. 자연인은 십계명 중에서도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으나, 지상에 속하는 인간과 관련된 윤리적 계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분별하고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¹³⁵⁾ 따라서 자연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에서 범죄한 인간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에 그치지만 사회생활과 관련된 시민법과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갈뱅의 자연법에 대한 인식에서 명확한 것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법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타락한 이후에 자연법은 희미해져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뱅의 사고의 방향은 자연법에서 십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자연법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갈뱅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십계명과 같이 독립적인 법의 근원은 될 수 없으나 도덕법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법률과 통일성을 인식하게 만들어 각국의 형평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 자유롭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인간이 제정하는 모든 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¹³⁶⁾

134) J. Calvin, Inst.(1559) II. 2. 12-22.

135)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연 무력하며,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J. Calvin, Inst.(1559) II. 2. 24).

136)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77-181쪽.

B. 실정법

그러면 자연법과 실정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의 통치에서도 법이 필요한데 이 법의 근거는 무엇이며 또 도덕법으로 십계명과는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교회와 국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정법의 근거와 십계명과의 관계를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만 국가의 통치에도 복종할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새겨진 선악의 개념에 입각하여 실정법을 제정한다. 갈뱅은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반영하는 법률 제정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는 십계명을 표준으로 삼고 구약의 재판법들은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자연법을 보충적인 것으로 삼았을 때, 제네바에서 제정된 실정법에서는 이런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갈뱅은 제네바로 돌아오자마자 교회규정을 작성하였고, 1542년에는 민사소송법(Edict of Lieutenant)을, 1543년에는 제네바의 헌법 역할을 했던 관직과 직분자에 대한 규정(Odonnances sur les offices et officiers)을 작성하였다.¹³⁷⁾ 그 후 그는 1545년에 결혼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1561년이 되어야 정식 법률로 시행되었고, 검약법(sumptuary law)은 목사들의 노력으로 1558년 시의회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모든 법들은 갈뱅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구성한 법률 작성 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들었으나, 갈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³⁸⁾ 이렇게 제정된 법들은 모두 시의회가

137) *Calvini Opera Omnia*, 10권, pp. 132-146, 위의 책, 181-18쪽에서 재인용.

138) Basil Hall, "John Calvin, The Jurisconsults and the Ius Civile." in *Studies in Church History* Vol. III. 212. ed., G. J. Cuning. Leiden: E. J. Brill, 1966.

제정하였으나 그 성격에 따라 시민법에 속하는 것과 교회법에 속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회법에 속하는 것은 교회규정과 결혼법과 검약법이고 나머지는 시민법에 속한다. 교회법에 속하는 법들은 1555년 이후에 제정되었다. 여기서 교회법에 속하는 법들은 갈뻡을 지지하는 세력이 제네바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민법의 제정을 살펴보면 이 영역에서 갈뻡은 관리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인정하였다. 영적 통치와는 달리 외적 정책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관리들은 성경의 원리도 고려하지만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상당히 자유로움을 인정한 것이다. 갈뻡은 사무엘상에 대한 설교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왕들, 군주들 그리고 관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구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통치에 의해 적합하고 유용하다고 알고 있는 법을 만들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갈뻡은 신속한 재판과 순회 재판 제도를 성경에 근거하여 요청하였다. 1555년에 이르러 재판 진행에서 신속함뿐만 아니라 상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성경의 요구를 발견했다. 그는 “각 성에서 재판장을 두라”(신 16:18)는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모든 곳에서 무질서가 범람할 때,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악행들이 유행하고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날 때 교정이 아주 오래 연기된다면,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가 대비되기 전에 일백 개의 잘못들이 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들(재판관)이 모든 도시에 파송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과 부패가 일어나는 곳마다 구체책이 즉시로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최고의 법정(Sovereign Court of Justice)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어려운 문제들과 아주 중요한 사례들은 모세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¹³⁹⁾

그는 재판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범죄를 예방하여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모세가 최고 법정으로 역할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네바에서도 그러한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갈뱅의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인 법에서 관리들에게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폭 넓은 자유를 인정한 그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그의 통치영역의 규범서에 기록된 실정법의 근원인 존재로서 자연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갈뱅에 의하면 자연법은 모든 실정법의 규율이요 목표인 동시에 실정법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이다.¹⁴⁰⁾ 이러한 법제정은 성경의 원리와 함께 인문주의 법률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당시 제네바의 사회 환경에 적합한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교회법을 제정하면서 갈뱅은 성경적 근거 위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법 분야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한다. 1541년의 교회규정을 제정하면서 교회의 모든 규정은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법률의 제목은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시고 그의 말씀에 의해 제정된 영적 통치는 우리 가운데 준수되어야만 한다.”¹⁴¹⁾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교회법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근거로 삼을 여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네바에서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들은 1561년 11월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통과되어 교회규정에 통합되었다. 제네바 시민들의 결혼은 레위기 18장에서

139) *Sermon Deut.* 16:18-19(p. 621).

140) 보하텍의 견해에 의하면 자연법이란 도덕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모든 성문법의 규범(ratio)의 역할을 한다. …자연법은 실증법의 표준이요, 목표요 한계이다. Bohatec, *Calvin und das Recht*, p. 126. 101. 홍치모 편저, 『갈뱅과 낙스』(서울: 성광문화사, 1991), 144쪽 재인용

141) J. K. S. Reid ed. and tran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LCC Vol. XXII(London: SCM Press, 1960), p. 67.

확립되고 1545년의 결혼 규정에 의해 재규정된 성경의 인척 범위와 혈연관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되었다. 결혼은 약혼한 지 6주 이내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회가 질책하고 결혼을 명령할 수 있었다. 1549년의 특별규정에 의하면 결혼식에서 신부가 처녀이면 머리를 꽃으로 장식하나 처녀가 아닌 경우에는 베일을 써야 했다. 간음자들은 정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당했고 중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1558년 검약법은 제네바에서 목사들의 주도로 시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목사회를 대표하여 갈라르(Nichoas de Gallars) 목사는 우리 가운데 사치와 무절제가 감소되지 않고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창피거리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무절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분개하기 때문에 검약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이 검약법은 사치를 줄여서 제네바에서 빈곤을 퇴치하려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시의회는 법을 제정하면서 많은 악을 발생시키고 탐욕스러운 교만을 마음에 품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빈곤, 높은 생활비 및 많은 파멸의 원인이 되는 사치 행위를 근절시키는 어떤 좋은 방책을 만들고 그 법들을 성안(成案)시키기 위하여 목사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법률은 주로 음식과 의복의 사치문제를 다루었다.¹⁴²⁾

이와 같이 칼뱅은 결혼과 검약에 대한 법률, 시민법 등을 포함한 실정법을 제정하면서 성경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나 당시 제네바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정하였다. 그는 성경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준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시키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방인들의 자연법에 입각한 실정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잘못되지만,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도덕법의 원리를 일정 수준에서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양심에 남아 있는 선악의 개념인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은 하나님의 심계명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¹⁴³⁾ 그리스도

142)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188-189쪽.

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제3용법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하므로,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에 입각하여 실정법을 비판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국가와 사회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힘써야 한다. 국가의 실정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불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율법의 제3용도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실정법을 더욱 완전한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실정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C. 언약과 십계명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주신 자연법은 타락으로 인하여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십계명을 계시로 알려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이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면 십계명은 어떤 이유에서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가?

1. 율법의 요람(cradle)으로서 언약(covenant)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율법의 중요성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에서 기인한다. 갈뱅의 율법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언약의 범임을 인지할 때 올바르게 이해

143) 실정법이 왜곡되어 십계명과 충돌할 경우,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신사참배 등에서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의 근거가 여기서 생기게 된다.

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율법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선하게 살라는 계명의 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언약에 포함된 것이다.

나는 율법을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원칙을 가르치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종교 형태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말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 민족이 거저 받은 언약(은혜언약)과 그들이 언약의 상속자임을 여러 번 그들에게 회상시켰다. 마치 그는 그 언약을 부활시키려고 파견된 것 같았다.¹⁴⁴⁾

그리고 니젤(Niesel)에 따르면 갈방은 ‘언약법으로의 율법’¹⁴⁵⁾을 말한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이 점점 경시되었고 사람들이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그것이 석판(tables of stone)에 새겨지고 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종족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결코 잊혀지는 일이 없게 하셨다.”¹⁴⁶⁾는 것이다.

144) J. Calvin, *Inst.*(1559) II. 7. 1.

145)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86쪽.

146) *Comm. Ex. 19:1* (CO 24, 192).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비록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채택하신 계명으로서 구원이 그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언약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에 의해 전달된 그 보편적인 교리와 그(아브라함)가 받은 특별한 명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성실로 인해 폐기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지만, 그 언약은 여전히 확고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언약이 인간들의 허물로 인해 산산조각 나서 무효가 되었으나 여전히 약속을 확고하게 지켰으므로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¹⁴⁷⁾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샘(the fountain of pity)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God’s mercy)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가치(worthiness)나 공로(merits)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 이유와 안정성과 효력과 성취를 갖는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에 의존하며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보여 주고 또한 언약을 지키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언급하고 있다.¹⁴⁸⁾ 따라서 갈벱에 의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뜻의 표현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짐(burden)이 아니라 특권(privilege)이고 속박(restriction)이 아니라 도움(aid)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며 청의와 성화를 입은 하나님 백성의 길잡이(guide)이다.

그리고 갈벱에게 있어서 율법과 은혜언약은 원초적으로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다. 그는 율법과 언약을 동일한 실제의 다른 측면으로 간주하였으며 때때로 율법과 언약의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어떤 문맥에서 언약은 율법의 동의어였다고 한다. 호세아 8:1¹⁴⁹⁾에서 언약과 율법은 동일한 것을 실제로 반복한 동의어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인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

147) Comm. Ezek. 16:62.

148) Comm. Daniel 9:4.(CO 41, 133, 134).

149)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신 후 시내 산에서 교회를 재편성할 때, 율법에 의한 언약갱신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백성 됨은 결코 실패될 수 없음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소위 율법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예언자요 자비와 성실하심을 알려 주는 자이다. 갈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구속행위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에서 완전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구속의 절정(climax)은 언약이 주어진 시내 산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규범(rule)을 주셨고 그들을 자신에게 묶어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공하기 위한 은혜의 길잡이로 주신 것은 바로 은혜의 규범(gracious rule)이었다. 갈뻥이 율법의 영광을 찬양한 것은 율법을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언약 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¹⁵⁰⁾

2. 십계명

율법 중에 가장 기본 법은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약성서의 산상수훈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갈뻥은 모세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도덕에 관한 법(moral law)과 의식에 관한 법(ceremonial law), 재판에 관한 법(judicial laws)으로 구분한다.¹⁵¹⁾ 그런데 의식법과 재판법은 도덕법에 의존하고 근거를 두고 있다. 의식법은 도덕법의 첫째 돌판과 연결되어 있고 재판법은 둘째 돌판과 관련이 있다. 의식법과 재판법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법 준수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첨가된 것이라

15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88쪽.

151) J. Calvin, *Inst.*(1559) IV. 20. 14.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의 의식법과 사회적·시민적 법의 중요성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갈벡은 모든 율법을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것으로 보았다. 언약공동체의 삶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들도 이들의 통일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법들의 기초로서 도덕법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의 교리 관계와 같다.¹⁵²⁾

도덕법은 불변적이며(immutable) 영원한 법이다. 기록된 도덕법은 자연법을 표명한 것이다. 십계명은 자연법에서 너무나 희미했던 것을 더욱 분명히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고 지성과 기억에 감명을 주기 위해 성문법으로 주신 것이다. 콜프하우스(Kolfhaus)에 의하면 갈벡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확고한 원리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decalog)에서 제공된다는 것이다.¹⁵³⁾ 그리고 갈벡 스스로도 이 문제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명령하신 공통된 생활법칙(십계명)보다 더 완전한 원칙을 고안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증스럽지 않을 수 없다.”¹⁵⁴⁾고 하였다.

갈벡의 십계명 사용은 서문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1-1). 갈벡은 이 서문이 첫 번째 계명의 일부분이거나 십계명과 분리되어 취급되는 켈변을 거부한다. 중요한 것은 이 서문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머리말’¹⁵⁵⁾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서문의 특별한 의미는 언약에 대한 십계명의 관계에 의한 것일지라도 구원의 신적 경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서문의 특별한 역할은 율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

152)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ickwick Publications, 1992), p. 102.

153) *Vom Christlichen Leben*, 115, 위의 책, 103쪽에서 재인용.

154) J. Calvin, Inst.(1559) IV. 13. 12.

155) J. Calvin, Inst.(1559) II. 8. 13. Cf. Comm. Ex. 20:1.

하고 구속하는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율법선포자(Lawgiver)의 권위와 숭고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속사역을 알게 함이다. 그리고 갈뱅에 의하면 법을 제정할 때는 그 법이 멸시를 받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숭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로 삼중(三重)의 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자기의 권위에는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선민이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억제하신다.

그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셔서, 은총의 즐거움으로 그들을 끌어 성결에 대한 열성을 일으키려 하신다.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은혜들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자기의 친절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의 배은망덕을 책하려 하신다.¹⁵⁶⁾

그러나 이 삼중적 증거는 기본적으로 서문의 주요 두 부분에 근거한 이중적 호소이다. 갈뱅은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하심과 언약의 약속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는 새 언약의 말씀에 포함된 상호관계를 강조함을 근거로 한다.

서문의 둘째 부분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 즉 속박의 집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속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는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됨으로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써 경배하기 위해서다. 또 모든 사람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사로잡히고,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을 느끼고 배우며, 영생과 영광을 기대하며, 놀라운 권능과 자비에 의해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알기 위함

156) 위의 책.

이다.¹⁵⁷⁾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에 뒤따를 뿐 결코 앞서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다.

칼뱅의 제시하는 십계명 해석의 세 가지 원리¹⁵⁸⁾는 서문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도덕적 율법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영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해야 하며,”¹⁵⁹⁾ “비복음적인 문자주의 혹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다.”¹⁶⁰⁾는 것이다.

첫째로,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려면 입법자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 입법자이시므로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상대해서 말씀하신다. 영혼이 하는 살인은 분노와 미움이며 도둑질은 악한 탐욕이며 음행은 정욕이다. 즉 “제6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비단 살인 뿐만 아니라 분노와 증오까지, 그리고 제7계명에서는 단순한 간음외에 욕정(lust)과 무절제한 정욕(passion)까지도 포함된다. 또 제10계명의 경우에는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탐욕과 허욕, 그리고 속임수까지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다.”¹⁶¹⁾ 하늘의 율법은 영혼을 상대로 내린 것이기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먼저 영혼을 억제해야 한다. 율법은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의 복종과 천사와 같은 순결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

157) J. Calvin, *Inst.*(1559) II. 8. 15.

158) 해석의 세 원리는 『기독교 강요』 II권 8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6절과 7절, 둘째는 8절에서 10절, 셋째는 11절과 12절이다.

159) J. Calvin, *Inst.*(1559) II. 8. 6.

160)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 (Grand Rapids: The Reformed Church Press), 최덕성 역, 『개혁주의 전통』 (서울: 본문과 현상사이, 1997), 81쪽.

161) OS 2. 8. 6; LCC 20. 372.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tated by Benjamin W. Farley, Forwor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박희석 역,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1), 42쪽에서 재인용.

다.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을 복음으로 보충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순수성과 성실성을 회복하신 것이다.¹⁶²⁾

둘째로, 명령(commandments)과 금지(prohibitions)는 항상 문자로 표현된 것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계명들은 제유법(提喻法, synecdoche)이 사용되었으므로 율법의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는 제유법의 원리, 즉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화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계명이 부정적이라면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과 그 역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¹⁶³⁾ 즉 반대의 법칙(rule of opposition)을 다루는 것으로 어떤 행위가 권장할 만한 행위로 칭찬을 받는다면 그와 정반대가 되는 행위는 정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⁴⁾

셋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두 판(two tables)에 나누어 배정했다는 점이다. 이 두 판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둘째 판은 첫째 판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판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의(義)는 의의 시초와 토대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공평과 극기(克己)와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둘째 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주께서는 율법 전체를 두 제목으로 요약하셨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셨다.¹⁶⁵⁾ 특히 갈렙은 신앙과 사랑, 종교와 윤리의 중요한 연결점을 지적하였다. 모든 계명 속에서

162) J. Calvin, Inst.(1559) II. 8. 6-7.

163) J. Calvin, Inst.(1559) II. 8. 8-10.

164) OS 2. 8. 10; LCC 20. 376.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lated by Benjamin W. Farley, Forword by Ford Lewis Battles, 박희석 역, 『칼빈의 십계명 설교』, 43쪽에서 재인용.

165) J. Calvin, Inst.(1559) II. 8. 11-12.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사랑을 단순하게 교훈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두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의존적이고 분리되지 않을 지라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첫째 판에서 명령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며, 둘째 판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표현한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요 정수이다. 따라서 십계명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두 차원에서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위대한 계명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약, 즉 십계명의 논의 전체는 신약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상설교가 따로 취급되지 않는다 하여도 『기독교 강요』에서 십계명 설명은 결과적으로 산상수훈의 많은 주제들을 취급하고 있다.¹⁶⁶⁾ 이렇게 볼 때 “갈뱅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 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로 생각하여 율법주의적 도덕 법전을 세워 놓았다.”¹⁶⁷⁾는 주장은 아주 부당하다. 그리고 “생에 대한 전체 시각은 그리스도보다는 모세의 정신으로 물들여져 있다.”¹⁶⁸⁾는 선언도 표적을 빗나간 것이라 하겠다. 갈뱅은 율법을 그리스도와, 십계명을 산상수훈과 대립시키는 것을 전혀 인정치 않았다. 폴레만(Paul Lehmann)이 “율법의 내적 의미에 비취 볼 때 개혁자들이 산상설교와 십계명 사이에 본질적인 일치점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옳았다.”¹⁶⁹⁾고 말한 것은 갈

166) 실제로 『기독교 강요』 II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이 수없이 언급된다. 특히 2, 8, 7, 26, 57, 59 참조.

167) Georgia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ashville: Abingdon, 1958 reprint), p. 63.

168) 위의 책, 113쪽.

169)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p. 78, Donald K.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MI., USA: Grand Rapids, 1984),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

뱅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갈뱅의 십계명 주해는 동시에 산상설교의 설명이다. 이것은 율법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꿰뚫고 있으며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시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빛에 가려져도 안 되며 오히려 산상수훈의 내용과 일치되기 때문에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올바른 지침과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D.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갈뱅이 말하는 율법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과 대립되는가? 아니면 일치를 하는가?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신·구약 성서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갈뱅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의 성서와 계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실제적 문제는 구약성서의 해석이다. 먼저 갈뱅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독교 강요』 II권 9-10장에서 율법과 복음은 본래 구약과 신약성서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하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9장의 제목에서처럼 우리는 구약성서와 옛 언약을 율법으로, 신약성서와 새 언약을 복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족장들에게 주신 자비의 증거와 부성적인 사랑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은혜의 선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포괄적 개념이며 옛 언약의 모든 시

말씀사, 1991), 242-243쪽에서 재인용.

대와 섭리를 내포한다. 율법은 원래 이 문맥에서 십계명 혹은 법적 본체(corpus)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갈뱅은 10장과 11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similarity)과 차이성(difference)을 말한다. 율법과 복음이 사용될 때 그들의 본질(substance)은 동일하지만 처리(administration)의 형태는 다르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본질(substance)과 실상(reality)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둘이 하나다.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르다.”¹⁷⁰⁾ 그래서 갈뱅에게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언약, 즉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이 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은 하나의 언약이 처리되는 방법에 따른 차이이다.¹⁷¹⁾

그러나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갈 3:19)고 선언하고 있으며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갈뱅은 율법의 고소하고 죽이는 기능과 위협과 저주를 당당히 말한다. 율법의 협소한 이러한 측면은 『기독교 강요』 II 권 7장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바울 서신과 관계된 자료들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¹⁷²⁾ 예컨대 갈뱅은 바울을 비롯한 다른 성서기자들이 율법을 복음에 반대되는 것의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율법의 특유한 임무(office)와 능력(power) 그리고 목적(end)을 논하고 있을 때, 율법을 은혜의 약속과 분리시키고 있다.”¹⁷³⁾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삼중적 방법에서 묘사될 수 있다. 본질의

170) J. Calvin, *Inst.*(1559) II. 10. 2.

171)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 157.

172) “율법의 정죄기능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7절에서 말한다. 여기서 갈뱅은 율법을 거울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우리의 무력함과 죄악과 저주를 이 율법의 거울에서 본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고 한 사도 바울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173) *Comm. Exodus 19:1* (CO 24, 193).

일치성(a unity of substance), 처리와 교훈의 형태와 양식에서 차이(a distinction in the form or mode of administration and instruction), 문자와 성령의 대조(an antithesis of letter and Spirit)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율법이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며, 세 번째는 율법이 부정적이고 협소한 의미에서 사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1. 본질의 일치성(unity)

율법과 복음의 일치는 확립된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 없이 동일하시며, 그의 말씀은 불변하시며, 그의 계시가 통일적이고 그의 진리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¹⁷⁴⁾ 갈방은 새 언약을 옛 언약에 대립시키지 않는다. 만약에 대립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참되지 않으며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¹⁷⁵⁾ 결국 율법과 복음의 일치성에 대한 갈방의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구원하시는 목적의 일치성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시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new covenant)을 말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히 8:13)고 말씀하셨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갈방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약, 즉 은혜언약을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새로움은 형식에만 적용되며 전반적인 외적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substance)에 있어서는 동일하다¹⁷⁶⁾는 것이다.

174) Cf. Comm. Hebrews 1:1.

175) Comm. Jeremiah 31:33.

176) 위의 책.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불변하시기에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는 말씀에서 ‘어제’는 구약성서의 모든 시대를 포함한다고 갈벡은 말한다. 율법은 성서의 기초(foundation)요 핵심(core)이다. 선지자나 사도, 심지어 그리스도도 율법의 해석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에 새로운 말씀을 첨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언자들이 가르친 교리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불과했다.”¹⁷⁷⁾는 것이며 “예언과 복음은 가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충한 것”¹⁷⁸⁾이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율법의 증여자(law-giver)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해석자이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율법을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성(integrity)을 회복하셨다.”¹⁷⁹⁾ 그리스도는 율법과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없듯이 율법과 복음도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계시의 일치성, 근본적으로 하나의 은혜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성 때문에 본질은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것이다.

2. 형식의 차이(distinction in form)

갈벡에 따르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차이는 원리적으로 교훈의 섭리와 방법의 양식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과 똑같은 구

177) J. Calvin, Inst.(1559) IV. 8. 6.

178) J. Calvin, Inst.(1559) IV. 8. 17.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통하여 대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엮으실 것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계획 밑에서 율법이 공포되었으며, 그 후에 율법의 선지자들이 해석자로서 또한 첨가되었다. J. Calvin, Inst.(1559) I. 6. 2.

179) J. Calvin, Inst.(1559) II. 8. 7.

원을 그들에게(구약의 열조)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성질과 형식은 우리의 것과는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도 않았다.”¹⁸⁰⁾ 그런데 이 차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로,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temporal blessings)으로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자기의 백성이 소망을 더욱 잘 배양하시기 위해서 그 유산을 땅에 붙은 혜택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제시했으므로 직접 내세를 명상하게 하신다. 둘째로, 구약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리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구약은 실재(實在)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을 뿐이고, 신약은 진리의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 계시한다.

여기에 옛 교회와 새 교회의 차이가 나타난다. 조상들은 죄에 대한 용서의 소망이 있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못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보다 명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충만하고 확고부동하지 못했다.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최상의 자유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효과와 완전성에 있어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없앴음을 입증하시고 확증해 주신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약속되었다. ……그러므로 속죄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연기되었으므로 율법하에서는 진정한 속죄란 전혀 없었으며 의식은 그림자적인 표현에 불과했다.¹⁸¹⁾

믿음은 그 당시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선조들에게는 완전한 빛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는 빛을 덜 받았다는 말이다. 결국 의식(儀式)이란 것은 그리스도 없는 그림을 대략 윤관만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사실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눈 앞

180) Comm. Hebrews 8:6.

181) Comm. Daniel 9:25.

에 직접 나타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들은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 아래서는 어둡고 애매하여 선조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든다면, 새벽 빛은 한낮보다는 밝지 않아도 여행하는 데는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선조들이 소유한 빛의 분량은 저들에게는 새벽 빛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저들을 인도하여 길 잃어버릴 위험 없이 안전히 영원한 복락에 이르기에 족했던 것이다.¹⁸²⁾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복음에서 나타난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히 7:19; 히 7:11; 9:9; 10:1; 시 110:4). 셋째로,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전자는 돌판에 새겼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전자는 죽음을, 후자는 생명을 전파하며,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파하며, 전자는 무효하게 될 것이요 후자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후 3:6-11).¹⁸³⁾ 넷째로, 구약의 노예상태와 신약의 자유이다.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 부르고,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즉 구약은 양심에 공포심과 전율을 붙여넣지만, 신약의 은혜로 양심은 해방과 기쁨을 얻는다. 구약은 노예의 멍에로 양심을 얽어매었지만, 신약은 너그러운 영으로 양심을 해방하며 자유롭게 한다. 다섯째로,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함이다. ¹⁸⁴⁾

3. 문자와 성령의 대조(an antithesis of letter and Spirit)

이제 우리는 율법이 복음에 반대되고 대조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분리된 법이 전체적인 법(*tota lex*)으로 오해하는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법을

182) Comm. Calatians 3:23

183) J. Calvin, Inst.(1559) II. 11. 7.

184) J. Calvin, Inst.(1559) II. 11. 1-11.

갈뱅은 ‘죄 인식 기능의 법’(bare law, *nuda lex*)으로 부르는데, 이는 양심에 가책을 주며 고소하고, 이 법 자체로는 언약과 약속으로 분리되어 있다.¹⁸⁵⁾ 갈뱅은 참으로 이런 법을 인정하고 있는가? 특히 율법과 복음의 대립 구조는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갈뱅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의 몇 구절 속에 나타난 갈뱅의 주석을 살펴보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갈뱅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요한은 율법이 은혜와 진리를 지니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진리란 사물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뜻한다. 은혜라는 말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던 의문(儀文)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고 나는 깨닫고 있다. 아니면 두 낱말이 환치법(換置法)에 의해서, 율법의 진리가 들어 있는 은혜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낱말을 연결시키든 구별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안에서는 신령한 축복의 형체만을 찾아 볼수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령한 축복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을 분리시키면 텅 빈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다.¹⁸⁶⁾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롬 5:20)의 주석에서 갈뱅은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전체적인 용도와 직무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현재의 목적에 도움을 주는 한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인간들의 멸망이 보다 분명하게

185)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ickwick Publications, 1992), p. 158, 188.

186) Comm. John 1:17.

계시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한다.”¹⁸⁷⁾고 하였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후 3:6). 여기서 갈벱은 첫째 답변에서 “바울이 율법을 문자로 부르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는 죽은 전파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복음을 영으로 부르는 것은 그것의 활동이 생생하기에, 아니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답변에서 “율법에는 인간들을 문자적으로만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귀 이상을 파고들지 않는 속성이 있지만, 복음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구이므로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확증하는 것은 옳고 마땅한 일이다.”는 것이다.¹⁸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고후 3:7)의 주석에서 갈벱은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담겨 있는 전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나, 구약 시대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세의 사역에 속한 것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있다. 즉 율법은 돌에 새겨졌으므로 문자적인 가르침이었고 이것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 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이 거룩하고 침해할 수 없는 언약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보장 밑에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율법은 정죄와 사망의 사역이었다는 결론이 따른다.¹⁸⁹⁾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갈 3:19)는 주석에서 갈벱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187) Comm. Romans 5:20.

188) Comm. 2 Corinthians 3:6.

189) Comm. 2 Corinthians 3:7.

율법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가 의도하는 문제와 꼭 맞는 것에만 국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 점은 독자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독자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오용(誤用)하여 바울이 여기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율법의 그 이외의 효용(效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다른 곳에서 율법의 여러 가지 훈계를 교훈이나 권면에 적용하고 있다(딤후 3:16-17).¹⁹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 율법의 효용에 대한 정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은 범법한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요, 또 이렇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범죄를 시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을 변명하기 좋아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일깨워 주지 않으면 저들의 양심은 마비되어 깊이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13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한 것이다. 확실히 율법이 와서 잠자고 있는 인간을 일깨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오심에 대한 진정한 준비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고 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로마서 7:13에 그가 대답하기를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죄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¹⁹¹⁾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율법과 복음의 모든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 서신에서는 율법의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부분을 강조하면서 복음과 관계를 설명한 뒤 복음으로 이끌고자 함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191) Comm. Galatians 3:19.

따라서 갈벙에 따르면, 율법과 복음이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하나님과 계시와 은혜언약과 교회의 일치성(unity)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며, 차이가 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집행 방법과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킨 것은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분적인 면만 말하여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었다.

E. 율법과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논할 시점에 이르렀다. 누가복음 24:44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록되었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갈벙은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힘과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갈벙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관한 교리를 전개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하는 장(章)을 다루고 있다. 율법의 정신에 주의하지 않고 율법의 성취자를 도외시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율법에 부딪혀 자기 파멸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부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생각과 행실로서 그 요구에 응답하려고 하기 때문에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은 무가치하며 확고한 근거가 사라진다.¹⁹²⁾ 따라서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규

정하고 무엇을 약속하는가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정위(定位)되어 있다.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옳게 이해할 수 없다.

율법의 모든 교훈과 명령, 모든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깨닫고서 굴복되어야 하고, 또한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의를 오직 그에게서만 구하게 되는 때에 가능하게 된다. ……율법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꾸준하게 노력하여 율법이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⁹³⁾

구약 전체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구약의 일부인 율법이 주어진 의도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항구 곧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것이 모세 사역의 끝과 목표와 의도였다.¹⁹⁴⁾ 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예배 형식은 진정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그 전체가 전혀 우스운 것이 된다.”¹⁹⁵⁾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주석 곳곳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유리된 율법은 ‘한날 어린애 장난으로’ 무시되고 조롱당할 수 있다.

갈뱅에 따르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이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기초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어진 언약은

192)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89쪽.

193) Comm. Romans. 10:4.

194) Donald K.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USA: Grand Rapids, 1984). M. Eugene Osterhaven, “칼빈의 계약관”,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124쪽.

195) J. Calvin, *Inst.*(1559) II. 7. 1.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으며, 비록 그것이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그가 오심으로써 실증되고 실제로 인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하여 약속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¹⁹⁶⁾ 그리고 “옛 세대에는 약속들이 가려져 있었고 알기 힘든 것이었으므로 눈부시게 우리를 비추는 복음의 명확함에 비하면 그 약속들은 오직 달이나 별들처럼 희미하게 빛났을 뿐이었다.”¹⁹⁷⁾는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이미 이 전에 나온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선지자들도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말씀의 참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보여 주셨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율법 사이에는 티끌만한 차이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가르침과 율법은 놀랍게도 일치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양자의 일치를 계속 강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그것이 첫 번 계약과 틀리지 않다는 점도 보여 주셨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이 백성을 상대로 맺은 언약이 영원히 확증된다는 그분의 목적 그대로다.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두며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33, 34)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내용은 이전 계약과 전혀 다르지 않고 새 계약이 오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자기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도이다.¹⁹⁸⁾

헤세링크(Hesselink)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본질이요, 혼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증보자요,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의 사역이 불가해하다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해석’은(신약의 나머지 해석도 마찬가지

196) Comm. Isaiah 4:6.

197) Comm. Hebrews 8:10.

198) Comm. Matthew 5:17.

지로) 자기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 우리는 ‘성경’ 곧 구약에 증거된 대로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이해하게 된다.”¹⁹⁹⁾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신·구약 이해의 열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학적 고리는 완성된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떠나 그리스도가 이해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 구약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빛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독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억누름으로써 악하게 복음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마는 미치광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모세는 멀리서 어둡게나마, 물론 세부적인 것은 열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노릇을 했다. ……율법의 모든 눈에 보이는 의식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원칙 밑에서 그는 모든 의식의 제사직, 희생제물, 성소의 순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체결한 언약이 어떻게 중보자에게 의존적인가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찾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²⁰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제할 때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제쳐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율법을 읽으면서 그들이 결길로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 그 자체도 그것의 목적(*adsum finem*)인 그리스도와 관련되기 전에는 그들에게 곡해되고 심연과 같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 지내려 하는 한 그들은 흑암 중에 방황할 것이요, 율법의 참된 의미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전체 성경에도 적용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경우 그 자체의 목적과 핵심

199) Hesselink, *Calvin's Concept and Use of the Law* (Basel University, 미간행 논문, 1961), chap. 7, p. 13.

200) Comm. Luke 24:27.

이 비뚤어지고 곡해되기 때문이다.²⁰¹⁾

갈뱅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도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²⁰²⁾고 하였다. 율법은 언약의 법이고 언약과 율법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갈뱅의 율법은 율법주의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율법의 강조는 그리스도와 관련되며 은혜언약을 포함한다. 만약 율법이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히 왜곡된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모세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였다. 갈뱅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발견할 수 없다.”²⁰³⁾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다(롬 10:4).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목표(*teles*)와 마침(*finis*)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는 전율법(whole law)의 성취(*fulfilment*)요 목표(*goal*)이며 동시에 율법 제도(*dispensation*)의 마침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의식에 특별한 율법의 측면을 폐지하시고 폐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뿐만 아니라 율법의 혼(*soul, anima*)이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여 율법의 혼(*soul*)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긴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세의 모든 사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며 우리는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조상들의 언약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언약의 우두머리와 원천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다.²⁰⁴⁾ “그리스도만이 율법에 생기를 불어

201) Comm. 2 Corinthians 3:16.

202) Comm. Hebrews 3:3.

203) Sermon. Ephesians 2:19-22.

204) Comm. John 5:46.

넣을 수 있는 분인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어떻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가?”²⁰⁵⁾라고 갈벱은 피력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생명이며 실체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부터 율법을 분리시키면 텅 빈 껍데기 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까지는 율법 안에서 아무런 실체(實體)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율법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얽어매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을 방해토록 한다면 율법을 그릇되게, 그리고 거짓되게 설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²⁰⁶⁾

또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모범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Ⅲ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부분인 6장과 7장의 주제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 실현해야 한다.”²⁰⁷⁾ 7장에서 갈벱은 율법을 언급한 후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력한다. “인간 생활의 정리를 위하여 가장 잘 마련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제공한다. 그러나 하늘 교사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율법에 제시된 준칙과 부합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²⁰⁸⁾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양자로 삼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일 뿐이다. 그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본받아야 할 살아있고 두드러진 모범(example)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205) Comm. John 5:39.

206) Comm. John 1:17.

207) J. Calvin, Inst.(1559) III. 6. 3.

208) J. Calvin, Inst.(1559) III. 7. 1.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에서였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가 그의 아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지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증거하신 것을 보면, 그는 그가 자기의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본(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²⁰⁹⁾

에베소서 설교에서도 동일한 권면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한 모범과 귀감(*patron*)으로 주어졌으며 더욱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진미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형성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라는 점을 알도록 하자.”²¹⁰⁾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신(*soul*)과 혼(*spirit*)이요 생명(*life*)과 실체(*substance*), 마침(*end*), 성취(*fulfillment*), 그리고 모범자(*exemplar*)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하며 그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갈뱅이 말하는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 용도는 신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그 용도 및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근거와 목적은 무엇인가?

209) Comm. Romans 8:29.

210) Sermon, Eph. 4:23-26.

IV.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전체적인 이해와 맥락 속에서 율법의 용도를 말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창조에서 복음에 이르는 율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갈뱅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율법의 용도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갈뱅이 말하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서 신학적 사용인 첫 번째와 정치적 사용인 두 번째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 율법의 신학적 및 정치적 사용

갈뱅은 율법의 용도를 『기독교 강요』 2권 7-8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설명한다. 율법의 첫째 용도는 고발적 기능 혹은 신학적 용도(*usus theologicus*)로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알리며 책망하여 정죄하는 것”²¹¹⁾으로, 거울(mirror)과 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거울이 우리 얼굴에 있는 오점들을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거울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력에서 생기는 죄악과 저주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와 소망도 없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그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때 하늘의 의사(*heavenly physician*)가 복음의 약으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첫째 용도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불신자들

211) J. Calvin, *Inst.*(1559) II. 7. 6.

에게는 변명할 수 없게 만들며 이 경우에 정죄와 사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자들에게는 신자를 고발함으로 은총을 구하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다. ……위대한 채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를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다.”²¹²⁾ 라고 칼뱅은 말한다. 율법의 이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가면을 벗기지만 구원의 희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루터는 율법의 정죄기능을 율법의 제2의 용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칼뱅은 이것을 제1의 용도로 제시하였다.

율법의 두 번째 사용 및 기능은 사회에서 외적인 훈련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욕이 몹시 끊어올라 영혼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멸시하는 상태에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억제되고 강요된 의는 인간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²¹³⁾ 이 율법은 위에서 말한 신학적인 기능과 달리 강제력을 띠기까지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정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이웃의 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강요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국가의 법에 순종하게 된다. 물론 신자들에게도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공포심을 일으켜 범죄를 제어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억제제로 작용한다.²¹⁴⁾ 이것은 율법의 정치적 사용(*political use; usus politicus*) 혹은 시민적 사용(*civil use; usus civilis*)으로 알려져 있으며,²¹⁵⁾ 루터의 제1의 용도에 해당한다. 모든 법의 출처는 하나님이지만 이 율법의 특성은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을 의미한다.²¹⁶⁾

212) J. Calvin, *Inst.*(1559) II. 7. 9.

213) J. Calvin, *Inst.*(1559) II. 7. 10-11.

214) 위의 책.

215)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p. 239.

21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392쪽.

B. 율법의 제3용도

1. 역사적 발전의 흐름

칼뱅은 멜랑히톤(Melanchton)의 '율법의 제3사용'(usus legis tertius)에 영향을 받아 이를 더욱 더 발전시킨다.²¹⁷⁾ 루터가 율법의 고발적 사용(usus elenchtiens)을 강조함에 반해 칼뱅은 율법을 중생한 자들을 위한 사용(usus in renatis)으로 확장하는데²¹⁸⁾ 우리는 『기독교 강요』 초판(1536)²¹⁹⁾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강요』는 6개의 신학적 주제들이 하나의 잘 짜여진 구조로 설명되고 있다.²²⁰⁾ 이 가운데 율법은 첫 장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가 전체의 맥락과 내용에서 어떠한 구조와 위치에서 발전되고 강조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칼뱅은 율법을 두 번째 장인 믿음 앞에 위치시키고, 율법의 첫 장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논하고,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

217) Melanchthon은 *Loci communes* 1521년 판에서, 죄를 밝히며 양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고유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1535년 이후에서 칼뱅은 여기서 설명하는 세 가지 효용을 도입했다. *Loci communes*(1521), ed. H. Engeland (*Melanchthons Werke in Auswahl*, ed. R. Stupperich, II. I. 122) 여기서서는 로마서 1:18을 근거로 율법의 둘째 효용을 역설한다. 그리고 협화신조(協和信條)에서는 셋째 효용을 올바르게 인정한다(제6조). J. Calvin, *Inst.*(1559) II. 7. 6.

21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138쪽.

219) John Calvin, Translated and Annotated by Ford Lewis Battles,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Atlanta: John Knox Press),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완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220) I. 율법-십계명 해설포함, II. 믿음-사도신경 해설포함, III. 기도-주기도문 해설포함, IV. 성례, V. 거짓 성례, VI.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

랑, 그리고 십계명을 강해한다. 특이한 것은 십계명을 요약한 뒤에 칭의를 말하고 또 율법의 사용을 언급한 후에 칭의와 믿음을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갈뱅은 아직도 루터의 고발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발전되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¹⁾

이와 같은 율법의 제3사용에 대한 갈뱅 사상의 발전은 제네바 『제1차 교리교육서』(1537)에서도 잘 나타난다.²²²⁾ 『제1차 교리교육서』에서는 루터의 방식²²³⁾을 따라서 십계명을 가장 처음에 두고 다음으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의

221) 갈뱅은 율법의 사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용을 언급한 뒤에 세 번째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은 경건의 훈련과 연습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성결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에 대해 상기시켜서, 경건과 순결을 추구하도록 일깨우는 바로 이것이다”(위의 책, 326쪽).

또한 “도덕법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족속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규정된 참되고도 영원한 의의 법칙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뜻이기 때문이다”(위의 책, 388쪽).

222) 갈뱅의 『제1차 교리교육서』 1536년 11월에서 1537년 1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1536년 8월 즈네브 종교 개혁자 파렐(Guillaume Farel)의 설득으로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을 결심한 지 불과 몇 달이 못 되어 작성한 것이다. 갈뱅은 종교개혁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옛 사상과 습관에 젖어 있는 신도들을 철저히 교육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순수교리에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내용적으로는 관찰해 보면 『기독교 강요』(1536년판)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Jean Calvin, *Le Catechisme de L'Eglise de Geneve*(1541/2),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역자 서문.

223) 루터의 문답서 구조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십계명을 앞에 둔 것은 율법의 제1, 2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뱅은 1차 교리교육서에는 루터의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2차 교리교육서에서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율법의 제3사용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즉 십계명의 구조 안에서도 바로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 부분에서 신지식과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갈뱅은 십계명을 전부 설명하고 나서 율법의 의미를 또다시 총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율법은 올바르게 거룩한 삶의 모범이며 의에 대한 아주 완전한 상이기도 하다.”²²⁴⁾고 말한다. 율법을 이렇게 정리한 후, 바로 다음 제목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전 단계’²²⁵⁾라고 정리하는 점에서 자칫 제3사용에 대한 이해가 축소되고 제1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갈뱅은 신앙 부분에서 선택과 예정을 신앙의 기초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거룩하게 된 것은 율법에 복종하기 위함이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성화의 삶과 관계해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따라야 하고 또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²²⁶⁾

그리고 우리는 제네바의 『제2차 교리교육서』(1542)²²⁷⁾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율법의 제3용법이 어떻게 위치하면서 더욱 발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2차 교리교육서』에서는 구조 자체에서부터 율법에 대한 갈뱅의 이해가 루

224) 위의 책, 44쪽.

225) 위의 책, 45쪽.

226) 율법의 준수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한 사역이 아니고 영적인 힘에 의한 사역이다. ……이제부터 율법의 실천(*usage de Loy*)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없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우리가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형성하고 가르치며 격려하는 지혜이고, 또 우리가 사악한 방종에 의하여 부패하게 되는 것을 막과하지 않는 삶의 규율(*discipline*)이 되고 있다(위의 책, 54쪽).

227) 본명은 다음과 같다: *Le Catechisme de L'Eglise de Geneve*(불어판); *Catechismus ecclesiae Genevensis*(라틴판). 갈뱅의 『제2차 교리교육서』는 『제1차 교리교육서』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55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1년 동안 매주일 규모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역자 서문).

터주의와는 분명히 다름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십계명을 사도신경의 뒤에 들므로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다.²²⁸⁾ 즉 사도신경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제시한 후에 신자들에게 있어 유용한 율법으로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자리매김에서 율법의 제3사용의 발전과 의미를 분명히 살필 수 있으며,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욱 확대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침으로서 율법의 제3사용은 계속해서 폭 넓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칭의와 성화 및 경건의 훈련인 삶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2. 하나님 뜻의 길잡이와 지침

그러면 갈뱅이 말하는 율법의 제3용도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갈뱅은 복음하에서 율법의 제3용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셋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이 용도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사시며 주관하시는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²²⁹⁾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이 기록되고 새겨져 있지만(렘 31:33; 히 10:16),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격려로 하나님께서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있지만 역시 두 가지 방면에서 율법의 혜택을 입는다. 그들이 양모하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²³⁰⁾

이러한 갈뱅의 율법은 단순히 인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용법으로만이

228) 위의 책, 103-141쪽.

229) Melancthon, *Loci communes* (1521), ed., Engelland, p. 133.

230) J. Calvin, *Inst.*(1559) II. 7. 12.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 표현이며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갈벱에게 있어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증생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알리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에 관련시킴으로써 복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다. ……말씀이 우리를 억제한다. 의의 완전한 교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영구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 위에 선행을 안출하려고 굉장히 수고한다. 이 과오를 고치는 최선의 책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생각을 확고 부동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것이 외에 다른 의를 가르치신 것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복종뿐이며,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허사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면서 해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이다.²³¹⁾

다시 말해서 갈벱에 의하면 “셋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²³²⁾ 그리고 제3사용의 혜택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그들이 앙모하는 주의 뜻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율법은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며, 둘째는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된다. 즉 율법은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부단히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²³³⁾

231) J. Calvin, Inst.(1559) II. 8. 5.

232) J. Calvin, Inst.(1559) II. 7. 2.

233) 위의 책.

따라서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생활의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한 은혜언약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이요 안내자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²³⁴⁾ 율법의 첫째와 둘째 용도는 부정적이거나 셋째 용도는 중생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성문법의 형태로 율법이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법은 타락 이전부터 존재하였다.²³⁵⁾ 따라서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인간의 범죄와 관계없는 본래적인 기능이다.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기능이 중심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부정적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려 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이다.²³⁶⁾

이와 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런 용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즉 갈방의 율법의 제3사용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관계가 없이 옛 시대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랑과 삶을 위한 생명과 성령의 도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후 율법에서 해방되어 영적 자유를 누리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율법의 가르침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주권하에 있는 교회와 국가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234) J. Calvin, Inst.(1559) IV. 20. 15.

235) Comm. Genesis 2:3.

236)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163쪽.

에 어긋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강제력과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는 자발성에 입각하여 순종하면서 경건의 훈련 및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3. 성서 주석의 중심 원리

그러면 율법의 제3사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길잡이가 된다는 성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갈방의 성서 주석에 나타난 맥과 흐름에서 이를 자세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는 갈방의 주석에서 성경의 세세한 부분들을 통하여 독특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갈방이 성경 전체를 주석할 때, 이 율법의 제3사용의 이해에 기초를 두면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주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갈방 주석의 특성은 매우 독특하며, 또한 갈방이 제시한 율법의 제3사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모세 오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²³⁷⁾ 더욱 독특한 부분은 나머지 성경들도 이 구조 속에서 주석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역사서와 시가서가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율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첨가된 것으로 제시하면서 그 독특성을 드러낸다. 즉 “선지자의 해석과 교훈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율법에 다 무엇을 더 첨가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신실하게 해석하도록 하며 율

237) 갈방 주석 3권과 4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석으로 각 성경의 장별로 주석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따라 편집하면서 주석을 하고 있다. 또 갈방은 “나는 행위에 관한 법규를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십계명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였다(Comm. 3권 23쪽). 여기서 갈방은 십계명에 따라 모세오경을 주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의 권위를 시인하는 역할을 한다. ……선지자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가르칠 때 그들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이해되어 온 율법의 부분을 설명할 따름이다.”²³⁸⁾ 그리고 앞장의 십계명 부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산상 수훈과 서신서도 이 십계명의 연장선에서 주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⁹⁾

갈뱃은 시편 119편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한 의와 진리를 가르쳐 주며 율법의 교훈 이상의 의나 정직의 표준이 있을 수 없다.”²⁴⁰⁾고 말한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서문에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하고 대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할 교회의 영구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¹⁾ 예레미야 26:4-5의 주석에서 갈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은 율법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가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명시하고 율법을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율법이 우리의 교사이며 지도자가 되게 하였고 그 위에 선지자를 더해 주셨다는 것이다.²⁴²⁾ 또한 갈뱃은 율법의 제3사용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에스겔 18:9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또 의롭게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저절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다. …… “하나님의 율법 전체의 목적은 우리가 거짓 없이 행동하고 순결한 마음에서 서로 도와 주도록 노력하고 모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

238) Comm, Isaiah, 서문, 36쪽.

239) J. Calvin, Inst.(1559) II. 8. 7. 참조.

240) Comm. Psalms 119:138.

241) Comm. Isaiah, 서문, 35쪽.

242) Comm. Jeremiah 26:4-5.

다.”는 유익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선지자는 ‘진리 수행’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²⁴³⁾

계속해서 갈렙은 에스겔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함 없이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진실된 생활이 있을 수 없음”²⁴⁴⁾과 율법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요 신령하고 거룩한 생활을 위한 통치 즉 순수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 백성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백성에게 제공하며 약속하신 메시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²⁴⁵⁾ 요엘서에서는 악인들을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행하기에 율법의 두 가지 면을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이요,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은밀한 명령이다.”²⁴⁶⁾ 미가서에서 선지자들의 계획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정통하도록 가르치며 율법의 교훈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²⁴⁷⁾ 말라기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불확실함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어떤 한계 속에 행동을 제한시키며 타락한 욕망을 억제시켜 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의 질서 가운데 있도록 지켜 준다고 말한다.²⁴⁸⁾ 이와 같은 선지서를 우리가 유익하게 읽고자 한다면 먼저 율법의 의미를 결정한 후에 예언서에서 읽은 말씀을 율법에 포함된 교훈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⁴⁹⁾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지서도 율법의 통일성 속에서 십계명과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제3사용은 성서 주석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길잡이가 됨을 알 수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중생 이후

243) Comm, Ezekiel 18:9.

244) Comm. Daniel 9:6.

245) Comm. Hosea 서문의 논증, 51쪽.

246) Comm. Joel 2:11.

247) Comm. Micah 4:4.

248) Comm. Malachi 3:14

249) Comm. Ezekiel 18:7.

경건 훈련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범을 따라 진리를 수행해 가는 것이며 변화된 삶의 목표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갈뱅의 성경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길잡이로 정해 주신 말씀의 진리와 함께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노력하는 정신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

4. 십계명 설교(250)에서 적용된 율법

지금까지는 율법의 제3사용에 대한 갈뱅의 성서적 입장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주석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갈뱅의 신학적 사고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설교되고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율법의 제3사용에 대한 교리가 단순히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갈뱅은 십계명에 관한 연속 설교를 1555년 6월 7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7월 19일 사이에 행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1555년은 갈뱅이나 제네바 공화국 모두에게 중요한 해였다. 그 해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갈뱅에 대한 반대자들의 몰락, 컨시스토리(the Consistory: 신앙문제에 관한 일을 취급하는 치리법원으로서 교회가 주관)에게 범죄자들을 성만찬에 참석치 못하도록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일, 방종파(Libertine Party)의 몰락, 그리고 베른(Bern) 시와 제네바 시 사이의 정

250) 십계명 설교의 원문은 ‘장 갈뱅의 현존하는 작품 전집’(Calvini Opera 26·236-432)으로 발간된 내용 가운데서 취한 것이다. 이 전집(The Corpus Reformation, CR)에는 신명기에 관한 갈뱅의 설교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십계명 설교는 그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tated by Benjamin W. Farley, Forwor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1), 47쪽.

치적·신학적 불화가 재개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십계명 설교는 이러한 역사적·정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기독교 강요』 가운데 명확하고도 간결하게 진술된 자료들을 보다 대중화시키고 당시의 현실 문제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기독교 강요』의 진가를 높여 주고 있는 동시에 경제사회 분야의 삶에 대한 개혁자의 사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²⁵¹⁾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강요』에서 갈뱅은 도덕법(moral law)을 율법 자체의 결정적인 요소로 여겼다. 갈뱅이 생각한 도덕법이란 십계명을 의미했으며, 그는 이것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의(義)의 규범’(the true and eternal rule of righteousness)으로 정의를 내렸다.²⁵²⁾ 이와 같은 율법의 제3사용이 십계명 설교 전체를 압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갈뱅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가운데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의 삶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 율법을 널리 공표(公表)하셨음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16편의 설교 전체에 대하여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²⁵³⁾

갈뱅은 1555년 6월 7일 금요일에 신명기 4:44-5:3에 관한 설교를 하였다. 이 부분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설명되고 있듯이 십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갈뱅은 십계명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서론적인 부분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서론의 부분에서 갈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율법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251) 위의 책, 19-21쪽.

252) OS 4.20.15; LCC 21. 1503 참조.

253)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tated by Benjamin W. Farley, Forword by Ford Lewis Battles, 박희석 역, 『칼빈의 십계명 설교』, 39-40쪽.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행복과 영광을 구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울러 율법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규범(the rule for right living)을 나타내 주고 있다.”²⁵⁴⁾ 그리고 갈방은 율법의 영원한 효력과 권위를 강조한다.

율법이란 결코 인간의 생명이 죽어 없어지듯 소멸되거나 그것을 최초로 들은 자들의 생애 동안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효력과 권위가 보존되도록 주어진 교훈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열조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이 선포되던 때 태어나도 았았던 우리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의식적인 의미에서 율법이 폐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본질과 교훈에 있어서 만큼은 언제나 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²⁵⁵⁾

이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일시적이거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길잡이이며 온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5:12-14에 대한 설교로서 1555년 6월 20일 목요일에 한 다섯 번째 설교이다. 이 설교에서 갈방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형식(form)에 관한 말씀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한다. 그리고 연이어 경건한 자들로 이것을 지키게 하시려고 친히 제정하신 질서, 곧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였다.²⁵⁶⁾ 여기에서 우리는 각 계명의 교리들이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로 제네바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254) 위의 책, 58쪽.

255) 위의 책, 74-76쪽.

256) 위의 책, 169쪽.

안식일에 관하여 명령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를 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의의 규범²⁵⁷⁾(perpetual norm of justice)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십계명하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규범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관하여 모세가 자세히 말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비록 그 상징은 아직껏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의 진수(眞髓)만큼은 우리들이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히브리서 4:1-11에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미 언급된 교훈을 그리스도인들과 신약교회(the new church)에 대한 교훈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²⁵⁸⁾

그리고 1555년 6월 26일 수요일 설교(신 5:16)에서 갈뱅은 “율법이란 전혀 흠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규범”라고 말하였다.²⁵⁹⁾ 그리고 1555년 7월 3일 수요일 설교(신 5:19)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불변하다.”고 했다.²⁶⁰⁾ 이와 같이 갈뱅은 율법의 제3사용을 당시의 제네바 성도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의(義)의 규범인 율법을 당시의 제네바 성도들에게 숨김 없이 철저히 설교하였으며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권면하였다.

그리고 신명기 이외에 갈뱅의 율법에 대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사야 설교에서 갈뱅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규칙에 철저히 순종하셨다.”²⁶¹⁾

257) 율법의 항구적 유효성에 관한 갈뱅의 주장에 주목하라. 율법이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모든 일들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결코 ‘영원한 의(義)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율법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갈뱅이 말하는 율법의 삼중적 용도와도 일치한다. J. Calvin, Inst.(1559) II. 7. 6-12 참고.

258) 위의 책, 179쪽.

259) 위의 책, 235쪽.

260) 위의 책, 334쪽.

261) John. Calvin, 김동현 역, 『이사야 설교』 (서울: 솔로몬, 1992), 50,

고 말한다. 그리고 욥기서 강해에서도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온전히 확증하셨고, 완전한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 끝까지 사람들이 율법을 경외하도록 하셨다.”²⁶²⁾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강해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가서에서는 신자가 율법을 삶과 예배의 규범으로 삼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 죄악적임을 인식하고 오직 주의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²⁶³⁾라고 갈벱은 기도한다. 그리고 미가 6:6-8²⁶⁴⁾을 설교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따라서 제사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방식을 좇아서 제사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미신의 원천이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진리를 무시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욱되게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²⁶⁵⁾ 그리고 계속해서 왜 이것이 죄악된 행동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라도 그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더하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²⁶⁶⁾

이처럼 갈벱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적인 전통과 사람들이 지어낸

113쪽.

262) John. Calvin, 서문강 역, 『욥기강해』 (서울: 지평서원, 1996), 491쪽.

263) J. Calvin, 서문강 역, 『미가서 강해』 (서울: 잠언, 1996), 55쪽.

264) 1550년 12월 27일 토요일 설교.

265) 위의 책, 427-430쪽.

266) 위의 책, 431쪽.

것에 매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에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약의 설교 중에서 에베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3사용에 대한 의미는 매우 깊은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위의 강요와 주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의 구조적 이해를 통한 신약적 이해가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설교되고 있다. 에베소서 2:8-10에서 믿음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을 설교하면서 갈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무엇이 선하며 또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 후에,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며 다스리심으로써, 우리의 삶과 당신의 법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이 오직 당신의 성스러운 율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²⁶⁷⁾

또한 에베소서 2:19-22의 설교에서는 신약적 이해를 통해서 율법의 제3사용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다.

오늘날 어떤 망상가들은, 우리들은 모든 종류의 가르침을 위하여 신약 성경 이상의 다른 것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의 모든 완전함이 복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그들의 교리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써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들은 그런 기초 위에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 주님이 예전에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²⁶⁸⁾

267) John. Calvin, 김동현 역, 『에베소서 설교』 (서울: 솔로몬, 1995). 237-238쪽.

그리고 갈뱅은 신약의 디모데후서 3:16-17을 설교하면서 “율법과 예언서와 복음서 등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가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과 말을 잘하고 민감하게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였다.²⁶⁹⁾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율법에 대한 적용이 제3사용의 의미로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뱅에게 있어서 율법의 이해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원한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율법의 이해는 갈뱅이 성경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원리가 되며 또한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설교의 목표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하며 진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이 점에서 루터주의의 율법 이해 방식과 또는 재세례파나 리베르틴파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루터주의는 형벌의 공포에 의해 악을 제어하며(제1사용) 각 사람의 불의를 책망하며 그의 죄를 깨닫게 해 주는 역할(제2사용)을 강조하는 반면에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삶의 규범(*regula vivendi*)으로서의 제3사용을 더욱 강조했던 것이다.

5.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용도

그러면 갈뱅이 율법의 제3사용을 강조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며, 타

268) 위의 책, 337-338쪽.

269) J. Calvin, 김동현 역, 『목회서신 강해』 (서울: 지평서원, 1996), 185, 198, 241쪽.

락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목적, 또한 율법을 길잡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뚜렷해질 것이다.

갈벡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도 율법의 기능이 폐기되지 않고 삶의 길잡이로 남아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이기도 하다. 갈벡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며”²⁷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다.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간다.”²⁷¹⁾고 하였다. 사도 바울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이 힘과 지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갈벡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²⁷²⁾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 전체의 목적은 율법의 명령들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율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알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골자를 회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

270) J. Calvin, Inst.(1559) III. 3. 9.

271) Comm. Matthew 5:45.

272) J. Calvin, Inst.(1559) III. 6. 1.

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12-13). 모세는 율법의 목표를 지적해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을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들려 주었다. 율법의 교훈이 목적하는 것은 성결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모세가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종(附從: 꼭 붙어 있게)하려는 것이다(참조 신 11:22, 30:20)²⁷³⁾

이처럼 “율법은 생의 규범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잡아끄는 고삐이며, 우리 육신의 나태함을 교정하기 위한 자극이 되는 한, 다시 말해서 모든 선한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기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에 유익이 되는 한, 지난날과 같이 오늘날도 유용한 것”²⁷⁴⁾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보여 준다. 유대인들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던 원칙은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완성된 상태로 회복하신다는 것이다.²⁷⁵⁾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과 율법에 순종하여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평생에 그들 앞에 두어야 할 목표, 곧 거룩함과 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목표를 알게 된다.”²⁷⁶⁾

그러므로 갈벱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표준과 길잡이로서 십계명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율법의 제3용법’(usus tertius legis)으로 갈벱에게서는 주된 용법이었다.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관념은, 일부 루터파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및 근본주의자들(특히 세대주

273) J. Calvin, Inst.(1559) II. 8. 51.

274) Comm. Galatians 3:25

275) Comm. Acts 28:23.

276) Comm. 1 Peter 1:14.

의자들)에게 늘 배척받았는데, 이는 '예수의 윤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원칙에 율법의 그러한 용법이 없으며, 신약은 율법의 제3용법 같은 것은 모른다는 그들의 단호한 입장 때문이다. 하지만 갈방의 율법 이해는 단순히 구약에만 얽매이고 신약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균형있게 조화시킨 가운데 나온 심오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현하는 길잡이와 울타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갈방의 율법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또 복음과 은혜의 자유를 모르고 율법만 강조하여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V.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본 장에서 우리는 율법과 신자의 자유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갈뱅이 강조하는 율법의 제3사용은 놀랍게도 신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율법주의로도 흐르지 않으며 은혜와 감사에 근거한 성령의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자유에 이르며, 율법의 적용 부분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율법주의가 극복되는 측면을 성령의 사역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변호했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물들 중의 하나이다.²⁷⁷⁾ 폴 베른르(Paul Wernle)는 “『기독교 강요』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장(Ⅲ. 19)을 ‘보석’(jewel)으로 묘사하며, 만약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장이 보다 자주 읽혀졌더라면 갈뱅을 율법주의자로 묘사한 그 동안의 무수한 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²⁷⁸⁾고 하였다.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를 모두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²⁷⁹⁾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참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갈뱅 당시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도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추구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277) 롬 6:15; 갈 5:1-13; 요 8:32; 뱀전 2:16 참조.

278) Paul Wernle, *Calvin* (Tubingen: Mohr, 1919), p. 131.

279) J. Calvin, *Inst.*(1559) III. 19. 1.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었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양심이 속박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갈뱅은 두 가지 양극단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는 리베르틴파와 같은 율법폐기론자들과 재세례파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적인 성격을, 로마 가톨릭교에 대항하여 그것의 해방시키는 효과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으며 참된 자유는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율법의 제3사용이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의지 결단에 의해 실행됨을 알아보고자 한다.

A. 율법에서 하나님 섬김으로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릴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또 이 자유에는 어떤 차원이 있는가? 자유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차원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오류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쉽다. 갈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율법에서부터 살펴보자.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자유의 첫째 부분은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에 의한 의를 일체 잊어버리고 율법을 뛰어넘어 더욱 전진해야 한다.”²⁸⁰⁾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갈 3:13)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의 지배 능력과 저주로부터의 자유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원하는 의(義)로부터의 자유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의를 포기하는 것

280) J. Calvin, Inst.(1559) III. 19. 2.

은 율법의 의 자체에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욕이 연약하여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²⁸¹⁾ 둘째는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이다. 율법의 강요에서 해방되는 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순종을 확립한다.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에 강요되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은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²⁸²⁾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자발성에 근거하여 선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법을 말하는 것이다.²⁸³⁾ 셋째는 아디아포라(adiaphora)의 의무로부터의 자유이다. 아디아포라는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무관심거리'(αδιαφοροτ)를 의미하는 용어로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 육식, 의복, 날의 준수 등 인간이 만들어 낸 전통과 규례에서 벗어나 누리는 자유이다.²⁸⁴⁾

따라서 칼뱅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내면적인 자유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외면적인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율법이 없이 방종으로 흐르는 자유가 아니라 자발적인 율법의 준수 안에서 얻는 자유이고 구원과 관계없는 외적인 문제들에서 누리는 하나님 섬김으로의 자유이다.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유롭다고 선언한다. ……우리의 양심은 자유하게 되나 이 자유가 우리를 금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자유하되 그들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신다.”²⁸⁵⁾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자신만을 위해 향유되어서는 안되고 연약한 자들의 양심과 영혼을 위하여 절

281) J. Calvin, Inst.(1559) III. 17. 7.

282) 참조: Melancthon, *Loci Communes*, ed., Engelland, p. 3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율법을 지키도록 독려를 받는다” (J. Calvin, Inst.(1559) III. 19. 4).

283)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499쪽.

284) J. Calvin, Inst.(1559) III. 19. 7. Cf. 위의 책.

285) Comm. 1 Peter 2:16.

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충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²⁸⁶⁾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의 교훈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II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에게는 이중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부적인 통치에 관해서 인간 사회의 법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며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다.²⁸⁷⁾ 갈벡은 로마서 13:1을 인용하여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국가의 권세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연법은 도덕법이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것이라고 하였다.²⁸⁸⁾ 정치권력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제시하는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은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발적으로 국가의 법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래서 갈벡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는 교회와 세상 정치 분야의 삶에서도 그 자유를 적용시키고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갈벡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로마 가톨릭과 율법폐기론자들과 관련하여 정립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다루면서 기독교인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가지는 해방시키는 측면과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측면을 제시하였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방종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의 억압에서는 해방되어야 하나 육체적으로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른 법을 제정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86) J. Calvin, Inst.(1559) III. 19. 11.

287) J. Calvin, Inst.(1559) III. 19. 15.

288) J. Calvin, Inst.(1536). 211, 216.

B. 성령의 사역으로 율법폐기론과 율법주의 극복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갈뱅의 그 당시에 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갈뱅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였는가? 갈뱅은 과연 성령도 없고, 복음도 없으며, 그리스도도 없는 율법주의로 흘렀는가? 우리는 갈뱅을 비난한 자들과 그들의 내용을 알아보고, 또 갈뱅이 이러한 비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고찰할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갈뱅이 말하는 율법의 제3사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중생된 이후의 성도에게 영원한 삶의 규범(*regula vivendi*)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인간의 규범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으며 또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율법주의’나 ‘율법폐기론’으로 치우쳐서 갈뱅과 그의 율법에 대한 바른 신학적 평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기도 하다.²⁸⁹⁾ 저명한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갈뱅이 강화시킨 제네바의 엄격한 훈련(*discipline*) 조치들 때문에 그의 신학을 율법주의적이며 신자의 자유와 복음의 기쁨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왔다. 이중예정론을 주장한 신학자,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자(엄밀히 말하면 갈뱅은 이같은 처형법을 반대했다)라는 이미지가 하나로 맞물려, 갈뱅은 성경을 하나의 법전으로 보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가혹하고 몰인정한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율법 선생

289) Friedrich Brunstad, *Theologie der Lutherischen Bekenntnisschriften* (Gutersloh: C. Bertelsmann, 1951), pp. 79-80; I.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New York: Reformed Church Press, 1988), 최덕성 역, 『개혁주의 전통』(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1997), 78쪽에서 재인용. 참조. Stefan Zweig, *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walt*, 오영옥 역, 『폭력에 대항하는 양심』(서울: 현대사상사, 1993).

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칼뱅 당시에도 공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여 율법주의(legalism) 경향을 보이는 로마 가톨릭과 율법 없는 복음을 주장하는 자유 방종적인 율법폐기론자(antinomian)가 있었다. 또 재세례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적인 성격을 잘못 이해하였고, 리베르틴파는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여 육체적인 방탕을 조장하였다. 율법주의란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 없이 지킬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공로와 선행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다. 반면 율법폐기론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여 비윤리적으로 혹은 올바른 지침 없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칼뱅은 리베르틴파와 같은 율법폐기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정당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나갔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한 질서와 일치에 기여하는 법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교회에서 법을 없애 버리면 곧 교회의 근육들이 분해되어 완전히 불구가 되어 흩어지고 만다고 역설하였다.”²⁹⁰⁾

율법이 선한 생활의 규칙이요 인간들을 규제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율법이 깨어진다면 모든 훈련(권징)이 즉시로 땅에 떨어지고 구속력이 산산조각나며 그리하여 결국 선악의 구별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에서 인정하시는 의가 그 율법이 폐기될 때에 폐지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폐기는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율법(precepts)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확증하시고 재가하시며 폐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²⁹¹⁾

290) J. Calvin, Inst.(1536), 200.

291) Comm. Romans 8:15.

갈뱅은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을 비판하였지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법을 제정할 교회의 권한을 주장하였다. 교회는 법을 제정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얽어매는 권세가 아니라 오리려 그들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²⁹²⁾ 교회법이 필요한 것은 구원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 사이에 인간적인 결속 안에서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²⁹³⁾ 그러므로 교회법은 혼란을 방지하여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율법의 제2사용인 정치적 용도를 가짐과 동시에 그들 사이에 건덕을 도모하고 참된 경건의 훈련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율법의 제3용도를 겸하여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구원을 담보로 인간의 양심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²⁹⁴⁾

이와 같이 갈뱅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면 때문에 갈뱅을 율법주의자로 비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성령과 분리된 율법은 마음의 완악함과 반항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읽는 자를 죽인다. 그러나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며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시 19:7)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빌 2:16).”²⁹⁵⁾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이해할 때 성령의 은밀한

292) 위의 책, 185쪽.

293) 갈뱅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의 예로 교회에서 여성이 침묵하는 것과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등의 태도를 말한다. 여성이 이웃을 돕는 일과 급한 경우에 수건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며, 침묵하는 것이 좋은 때가 있듯이 말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는 예는 공식 기도, 설교, 세례 등을 위한 장소와 시간의 제정, 찬송 선정, 성찬식 날짜, 징계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교회의 건덕을 목적으로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J. Calvin, Inst.[1536], 205-205).

294)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95쪽.

295) J. Calvin, Inst.(1559) I. 9. 3.

조명과 도움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가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령의 역사와 양자 됨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마음은 쇠나 돌같이 굳어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드럽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까지는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그와는 반대되는 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은 사악한 정열의 지배를 받아 우리를 반역으로 몰아 세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시지 않으시면, 즉 우리를 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형성하고 부합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그 율법을 선포하실 때 헛되이 하시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 본래의 사악성을 변화시키고 고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오직 악한 정욕과 완전히 사악에 바쳐진 마음을 발견할 뿐일 것이다.²⁹⁶⁾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 우리를 개심(改心)시키는 것은 의문(儀文)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문화된 문자를 자기의 성령으로 소생시키고, 지금까지 비유적으로만 상징되던 것을 마침내 사실로 드러내 보여 주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하셨다.”²⁹⁷⁾

따라서 성령의 도움에 의한 율법의 적용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주의적 경향을 벗어날 수 있다. 갈벱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다루면서 율법의 제3사용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⁹⁸⁾ 또한 성령께서는

296) Comm. Hebrews 8:10.

297) Comm. Matthew 5:17.

298)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신자의 어머니이며 은혜의 수단과 방편인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죄인을 도와주고 세워주신다. 심지어 권정도 약한 신자에게 도움을 주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함이다. 갈뱅이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서 길잡이로 보는 것은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거나 인간 행위의 공로를 쌓고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여 은총의 수단인 교회공동체를 기초 위에서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삶의 훈련에서 규범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억압하거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주장들은 배격되어야 하며 이것이 갈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1:2).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용법 및 역할을 갈렙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으로 경건을 훈련하면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개혁하며 성숙하는 삶이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한 갈렙의 사회적 성화운동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의 지침과 길잡이로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으며 이 율법은 은혜언약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한 것도 아니며 삶의 일부로 제한된 것도 아니며 삶의 길잡이와 지침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삶의 모든 곳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방향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훈련의 의미가 있으며 이것의 종착역은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이 피조된 인간의 근본 목적이며 참된 기쁨과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법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미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영역과 올바른 길잡이와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제한된 것도 아니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폐지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창조 시부터 주신 하나님의 뜻 표현이며 창조 질서의 법칙이

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총체적인 은혜의 법이며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그 의미와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율법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근본정신의 빛 아래서 이해될 때 가능하다. 비록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거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집행과 처리되는 방식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들의 본질은 변함없이 일치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해 있으며,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신과 성취와 모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꺾데기에 불과하며 그리스도만이 이 법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은 신·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산상수훈, 나아가 서신서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율법의 용도는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불신자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며, 강제적인 형벌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올바른 길잡이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등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같은 갈뱅의 율법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로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여 질서를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추구할 위험성을 극복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저주와 지배 능력에서 해방되는 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나 강압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이기에 참된 인격적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율법 없이 방종으로 흐르는 자유가 아니라 자발적인 율법의 준

수 안에서 얻는 자유이고 구원과 관계없는 외적인 문제들에서 누리는 하나님 섬김으로의 자유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는 연약한 자들의 양심과 영혼을 위하여 절제하며 국가법에도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은혜의 수단이고 신자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를 통해 연약한 죄인을 붙들어 주고 도와주며 세워주기 때문에 갈뱅의 율법주의 경향은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과 교회와 국가사회의 전 영역을 포함하면서 경건훈련의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율법의 제3사용은 그리스도인 삶의 규범과 지침 및 길잡이가 되며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율타리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기독교론적으로 접근하여 성령론적으로 적용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갈뱅의 율법 이해는 율법을 부분적인 측면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및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이해는 구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했으며 신약과 조화를 이루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율법 이해는 오늘날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삶의 무늬만 신자인 요즈음 세대,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시대, 그리고 신앙생활의 영역은 교회 안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일깨우고, 삶의 지침과 길잡이를 신학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침을 사랑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와 규범을 하나님의 법에서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의 물결로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창조 질서를 세우고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갈뱅 자신의 저작

Calvin, John. *I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Cunits, E. Reuss et al. 59 Vols. "Corpus Reformationum"; Brunswigae: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_____.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 Barth and W. Niesel, 5. Vols.; Monachii in Aedibus: Chr. Kaiser, 1962.

_____. *Le Catechisme de L'Eglise de Geneve*. 1537/ 1541.

2. 영문 번역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Henry Beveridge, 2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s. XX-XXI

_____. *Calvin's Commentaries*. Various Translators, 45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8.

- _____. *Calvin's Commentaries*. ed. by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 12 Vol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59-1972.
- _____. *Calvin's Commentaries*. tr. & ed. by Joseph Haroutunian and Louise P. Smith.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XXIII
- _____. *Calvin's Tracts and Treatises*. tr. by Henry Beveridge. 3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8.
- _____. *Theological Treatises*. tr. by J. K. 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Vol. XXII.
- _____. *Sermons on Deuteronomy*. trans. Arthur Golding. 1583; fascimile editio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 _____. *Sermons on Job*. trans. Arthur Golding. 1583; fascimile editio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3.
- _____. *Sermons on 2 Samuel: Chapters 1-13*.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2.
- _____.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ans. Arthur Golding, Leslie Rawlinson and S. M. Houghton.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3.
- _____. *Sermons on the Epistles to Timothy & Titus*. trans. "L. T." London: G. Bishop and T. Woodcoke, 1579; facsimile edition,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3.

_____. Translated and Annotated by Ford Lewis Battles.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Atlanta: John Knox Press.

_____.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ited and Transtated by Benjamin W. Farley, Forwor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_____. *Catechism 1537*. ed. and trans. Ford Levis Battles. Pittsburgh: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2.

3. 한국어 번역

칼빈.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완역).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
제스트, 1988.

_____.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7.

_____. 『기독교 강요』. 한철하·신복운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_____. 『기독교 강요선』. ed. by Hugh Thomson Kerr.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
독교교회, 1997.

_____. 『갈뱅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_____. 『성경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1999.

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____. 『칼빈의 십계명 설교』.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4. 2차 자료

Bieler, Adere.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Doumergue, Emil.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7 Vols.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899-1927.

_____. *Les Caractere de Calvin*. Neuilly: La Cause, 1931.

Dowey, A. Edward.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Edward, C. E. *Devotions and Prayers*. 문석호 역.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Hall, Basil. "John Calvin, The Jurisconsults and the Ius Civile." in *Studies in Church History*. Vol. III. 212. ed. G.J. Cunning. Leiden: E. J. Brill, 1966.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ashville: Abingdon, 1958.

Hesselink, I. John. *Calvin's Concept and Use of the Law*. Basel University,

미간행 논문, 1961.

_____.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ickwick Publications, 1992.

_____. *On Being Reformed :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 최덕성 역. 『개혁주의 전통』.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1997.

Hunter, A. M. *The Teaching of Calvin*. Glasgow: J. Clarke, 1950.

Kempff, Dionysius. *A Bibliography of Calviniana*. Potchestroom Herald, 1975.

Laing, David. *The Works of John Knox*. Edinburgh : John Stone & Hunter, 1855.

Leith, H. John.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이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9.

_____.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Little, David. *Religion, Order, and Law : A Study in Pre-Revolutionary England*.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9.

McKim, K. Donal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Milner, Charles Benjamin.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9.
- Niesel, Wilhelm. *Calvin Bibliographie 1901-1959*. Muchen: Chr. Kaiser Verlag, 1961.
- _____.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_____. *The Gospel and the Churches*. tr. by David Lew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Parker, T.H.L.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Edinburgh: Oliver & Boyd, 1969.
- Parker, T. H. L. *The Oracles of God*. London: Lutterworth Press, 1947.
- Richard,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 Walker, G. S. M. "Calvin and the Church."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by Donald K. McKi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 Wallace, S. Ronald.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Warfield, Benjamin Breckinridge. *Calvin and Augustine*. ed. by Samuel G. Crai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1.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 출판사, 1985.
- Wendel, Francois. *Calvin*.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Wernle, Paul. *Calvin*. Tübingen: Mohr, 1919.
- Zweig, Stefan. *Castellio gegen Calvin oder Ein Gewissen gegen die Gewalt*, 오영옥 역. 『폭력에 대항하는 양심』. 서울: 현대사상사, 1993.
-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김철영. “칼빈의 율법관에 드러난 자연법 이해.” 『장신논단』 제15집. 1999.
- 박봉량. 『교의학 방법론 제Ⅱ권』.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신복윤. 『갈뱅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서직, 1997.
- 이수영. “갈뱅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집, 1995.
- _____. “갈뱅의 성령론.” 『신학정론』 12권. 합신대출판부, 1994.
-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이장식 외. 『칼빈 신학의 현대적 의미』.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_____.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18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태연.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_____.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 『장신논단』 제6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0.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7. 서울: 한신대학, 1982.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현요한.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_____. “갈병의 교회론 : 성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86.